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609.1300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5.2580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한국 YWCA

이달의 생각

평화세상을 꿈꾸는 순례의 길

특집

2015년 한국YWCA 10대 뉴스

탈핵 이슈와 동향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달의 현장

가사지원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완료





성빈여사에서 수를 놓는 소녀들

YWCA OF KOREA

1952년 광주YWCA가 설립한 성빈여사(聖貧女舍)는 전쟁고아 등 불우아동 복지사업에 앞장서는 사회 복지기관이었으며, 성경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5:3)의 정신으로 시설 명칭은 성빈(聖貧)으로 정했다. 또한 불우소녀 가정들을 위한 야간 중학교인 호남여숙(湖南女塾)은 1954년 설립되었다.

광주YWCA의 총무 조아라 선생은 전쟁 이후 부모를 잃은 15~16세 소녀 고아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는 연합회 이사회에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광주YWCA의 초창기 총무이던 김필레 여사가 광주를 방문한 이후 1952년 7월 1일, 연합회는 성빈여사 설립을 승인했다.

“광주시로부터 위임받은 우유공급소를 경영하면서 성빈에서 살던 아이들은 낮에는 교대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가거나 수를 놓고, 밤에는 호남여숙에서 공부를 했다. 틈틈이 수놓은 수예품을 팔아서 보리죽으로 몇 달을 산 적도 있다”라고 당시 조규혜 광주YWCA 이사는 회고했다.

—『한국YWCA 80년사』 중에서



표지이야기

한국YWCA 창설자이자 기독교 여성 민족 교육자인 김필레 선생의 섬김과 봉사, 협력의 리더십을 배우는 정신여중생들입니다. 제3회 김필레리더십캠프를 통해 한국YWCA 설립자의 정신을 배우고 YWCA의 청년 리더십을 계속 꽃피우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평화세상을 꿈꾸는 순례의 길 | 이명혜
- 05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12월의 한국YWCA | 유성희
- 06 성탄예배 2015년 내게 주신 평화의 메시지 | 편집실
- 08 **특집** 2015년 한국YWCA 10대 뉴스
- 12 원로에게 듣는다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YWCA가 되어야 | 편집실
- 14 여성 우리 사회는 성평등한가-2016 한국YWCA 성평등운동을 제안하며 | 김양희
- 16 청년 2030 일하는 여성,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 류형림
- 18 평화 평화를 전하는 회원YWCA 이야기 | 편집실
- 20 탈핵 이슈와 동향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 김은경
- 23 이달의 현장 ① 청주YWCA 창립 50주년 기념식 | 유경훈
- 25 이달의 현장 ② 가사지원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완료 | 배정미
- 27 이달의 현장 ③ 광역단위 ‘일자리 정책’의 성 주류화 현황 | 편집실
- 30 이달의 현장 ④ 제2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 편집실
- 32 한국YWCA 청년 인터넷 방송국 YWBS 10기 운영보고 | 전하예
- 34 세계YWCA 제28회 YWCA 세계대회
핵 반대, 차별금지, 추방활동 계획 발표 | 최지혜
- 36 연합회 소식
- 39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 40 회원YWCA 소식
- 49 2015년 월간(한국YWCA) 목차 색인

2016년 1~2월 한국YWCA 주요일정

- 1월 6일(수)~9일(토)
Y-틴 지도교사 연수
- 1월 7일(목)
연합회 신년예배
- 1월 12일(화)~1월 15일(금)
아시아 청소년 금융교육 캠프
- 1월 20일(수)~1월 22일(금)
Y-틴 전국협의회
- 1월 29(금)~30(토)
2016년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 2월 2일(화)~2월 3일(수)
한국YWCA 정기총회

평화세상을 꿈꾸는 순례의 길

글 |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2015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의미 있는 해에 남북 간은 여전히 평화적인 체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과 남북공동행사뿐만 아니라 교류협력도 활발하게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지난 10월, 60년 이상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겨우 12시간의 만남의 시간만이 주어진 후 야속한 시간을 뒤로 한 채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 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남북 여성들 간의 짧은 만남을 개성에서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2015년을 마무리해야만 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YWCA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정전협정체제 하에 살아가는 여성들인 우리가 그동안의 평화운동의 여정을 돌아보며 국내외 여성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평화운동의 발걸음을 작지만 힘차게 내딛었다.


지난 5월에 열린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 행사와 10월에 열린 평화나눔페스티벌 '한반도 평화에 물들다'에는 전국의 YWCA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평화, 평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냈다.

더 나아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회 YWCA 세계대회에서는 한국YWCA와 일본YWCA가 공동으로 제안한 핵에너지와 핵무기 반대(Equal Denial of

Nuclear Energy/Weapons)를 세계대회 결의문으로 통과시키며 핵 없는 평화세상을 꿈꾸는 한국YWCA 운동을 전 세계 회원국YWCA와 함께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2015년은 전세계 여성들과 함께 우리 안의 경계를 넘어선 만남을 실천하였고, 전국의 YWCA 회원들이 다함께 평화를 이야기하고 노래하였으며, 여성들이 삶의 경험 속에서 일상에서 실천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력으로서 가기를 다짐하는 한 해였다.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전국에서 YWCA와 함께하는 10만 여성들 그리고 2천5백만 전 세계YWCA 여성들이 될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길이 힘든 여정이기에 화해와 용서, 사랑의 피를 매고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낮은 자의 자세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 93년간의 역사 속에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말이다. 이는 YWCA의 순례가 곧 평화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12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정의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첫째 초를 밝힙니다.” “생명의 주 되신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두 번째 초를 밝힙니다.” “평화 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 번째 초를 밝힙니다.” 세 개의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염원하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YWCA 가족들은 ‘성탄’을 함께 맞이합니다. 2015년 성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세상’의 의미를 찾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운동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탄생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생명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성령의 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인 ‘평화운동’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12월에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들을 정리하는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연합회 주관의 광역단위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회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일자리 정책을 중

심으로 정책을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비교한 조사는 지자체의 성인지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초 자원이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역별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자체와 의회, 민간이 성인지 정책 정착을 위해 지역협력체가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살펴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니터링에 참여한 회원들이 지자체의 정책과 살림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여성운동으로 YWCA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수고한 회원Y에서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첫 작업이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 회원Y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3개월간의 노력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가사분야 직종개발을 마무리했습니다. NCS 개발이란 국가가 인정하는 직무능력의 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인데, 개발의 결과로 가사지원분야 표준안이 NCS 관리시스템에 포함됩니다. 가사분야가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직종이 되는 것이기에 NCS 개발을 위해 지난 1년간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그동안 비직업군으로 분류되었던 돌봄노동을 사회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분야뿐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는 많은 직종들이 NCS 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성직업의 직종들이 체계화되고, 인정되는 직종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연계하여 필요한 직무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동안 매주 화요일에는 한 주도 쉽 없이 ‘탈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고리1호기 폐쇄라는 기쁜 소식도 주셨습니다. 판문점과 임진각에서 울린 평화의 외침과 노래는 북녘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2015년, 평화의 도구로 YWCA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1년간 한국YWCA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내게 주신 평화의 메시지

12월 10일, 연합회 강당에는 이른 성탄예배를 드리기 위해 연합회 실행위원, 명예연합위원, 위원들과 회원YWCA 관계자들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편집실)

글 | 박요셉 (탈북청년, 주)요벨 대표)

2015년 9월 23일 이스라엘에 희년이 선포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를 특별 희년의 해로 정하였다. '희년'은 안식년이 일곱 번 되풀이되는 49년이 끝나고 50년째 되는 해이다. 희년은 '해방의 해'이다. 희년은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국내의 정치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노예된 자를 해방하고, 빛진 자의 빛을 탕감하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며, 팔린 땅을 본래의 경작자에게 되돌려 주고, 빼앗긴 집을 본래 살던 자에게 돌려주어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살롬을 이루어 평화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해이다.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희년의 해를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남북 정상이 화해하고,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고, 남남갈등 남북갈등으로 깨어진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 | 전배자 (실행위원, 강릉YWCA 중경회장)

오늘 이 시대에도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펼쳐 나가는 것이 YWCA의 힘이며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다.

수많은 세월동안 평화 세상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펼쳐 온 YWCA가 금년에는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콘서트와 국제 여성 평화걷기(Women Cross DMZ)를 통하여 YWCA 식구들을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 주시고 역사에 남을 큰 행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52개 전국 YWCA회원들이 완성한 천개의 색동 조각보 대장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다.



이제 100주년을 준비하며 꿈꾸는 세상 속에 남과 북이 마음을 열고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통일을 위하여 연합회와 52개 회원YWCA를 '하나님의 자녀, 평화의 도구'로 써주심을 기대하며 계속 그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란다.

글 | 함희경 (실행위원, 여성·성인지위원회 위원장)



2015년은 22살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올해가 YWCA에서 활동한지 20년 되는 해이다. YWCA의 모든 활동들에 평화라는 단어가 없으면 어색할 만큼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평화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토록 갈망하는 것일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신 주 자신이 '평화'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쓰여 있다. 결국 기독교의 눈으로 보는 '평화'의 정의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

예수님 생일에 즈음하여 깨닫는 것은, 우리 Y가 그토록 찾고 갈구하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며,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탈핵서명을 받고 DMZ를 세계여성들과 함께 걸으며 통일을 염원한 것이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곤 했던 우리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YWCA를 당신의 아름다운 도구로 써 주소서."

“평화를 향한 2015년!”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한국YWCA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실습니다.

2015년 12월 11일까지 연합회 실행위원, 회원YWCA 월간 담당 실무활동가, 연합회 실무활동가, 한국YWCA 페이스북 회원들이 직접 선정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100주년을 향해 가는 한국YWCA는 앞으로도 이 시대의 기독 여성들이 이웃과 지역 사회에서 돌봄과 정의를 나누며, 생명과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위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 (Women Cross DMZ)

2015년 한국YWCA 10대 뉴스 1위는 '2015 국제여성평화걷기(Women Cross DMZ, 이하 WCD)'가 차지했다. 국제여성 평화걷기는 올해 광복 70주년, 남북분단 70년의 해를 맞아 국제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 지대(DMZ)를 걸어서 종단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야외무대에는 사방 10미터의 대형 조각보가 걸렸으며, 총 1천 개의 조각으로 사방 1미터의

조각보 100개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연합회와 전국 회원YWCA의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Y-틴 회원들, YWCA어린이집을 비롯해 전국의 다양한 부속시설에서 평화의 조각보 제작에 참여했다.

2 위 40일 금식 기도회 등 고리1호기 폐쇄 성과를 이룬 활동들



6월 12일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지 37년 만에 폐쇄가 결정됐다. 특히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국YWCA연합회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연대의 공동대표로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40일 금식기도회'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매주 화요일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지난 2월 5일 한국YWCA는 2015년 정기 총회를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핵심 지역인 부산에서 개최하여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YWCA 전국 10만인 서명을 전달하고 총회 이틀째인 2월 6일에는 가장먼 소재 고리 1호기 앞에서 폐쇄를 위한 십자가 행진을 벌인 바 있다.



3 위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 지속

한국YWCA는 탈핵운동을 2013년 이후 전국 52개 지역YWCA가 함께하는 중점운동으로 정하여 후쿠시마 3주기인 2014년 3월 11일부터 연합회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역에서는 수시로 핵의 위험성과 수명 다한 핵발전소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폐쇄의 필요성을 알렸다. YWCA 10만 회원은 앞으로도 핵발전소 없는 평화 세상, 생명세상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4 위 제1회 평화나눔페스티벌 '한반도, 평화에 물들다'

한국YWCA연합회와 경기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 제1회 평화나눔페스티벌 '한반도, 평화에 물들다'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로 10월 6일(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됐다.

문화를 통해 남과 북,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 해소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YWCA 회원들과 시민들이 분단의 아픔을 안은 경기도로 모여 평화와 나눔의 의미를 다지고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다지는 행사로 진행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를 위한 YWCA-YMCA 공동 기자회견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11월 9일(월) 낮 12시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에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으로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아파하고 견뎌내며 국민들이 권리와 자유를 존중받으며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수많은 선혈들의 피와 눈물 속에서 100년을 이어온 YWCA와 YMCA는 입장 발표를 통해 국정화가 철회될 때까지 역사교

5 위



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교과서 철회 요구를

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다.

6 위 제28회 YWCA 세계대회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참가

4년마다 열리는 YWCA 세계대회가 올해는 28회를 맞아 10월 11일(일)부터 16일(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73개국 5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YWCA 대표단 20명이 참석했다. 한국YWCA는 평화, 탈핵, 싱크머니 총 3개의 워크숍을 주관했다. 또한 세계YWCA 공천위원으로 원영희 실행위원이 당선되었으며, 세계YWCA 부회장과 이사로 한미미 실행위원이 당선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2019년 열릴 제29회 YWCA 세계대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7 위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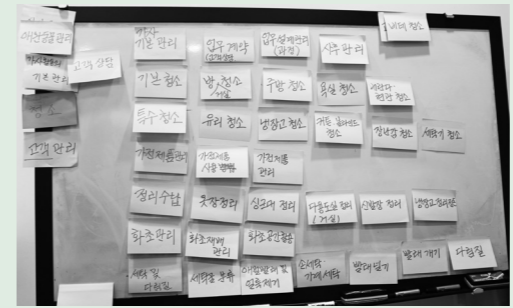
11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열리는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앞두고 10월 24일(토) 연합회와 서울YWCA, 경기지역YWCA(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와 동부지역YWCA(대구, 부산, 안동)의 실무자 90여 명이 YWCA 탈핵버스를

타고 영덕에서 열린 집회와 거리행진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10월 21일(수)에는 서울 원안위 앞에서 진행된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외쳤다. 또한 주민투표가 진행된 11월 11일(수)와 12일(목) 양일간 연합회와 대구YWCA, 부

산YWCA가 홍보단과 투표소 활동을 지원하며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했다. 한국YWCA는 투표관리 자원봉사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경기지역YWCA 외 10개 회원YWCA와 연합회 실행위원, 실무자들이 마음을 모아 주민투표관리위원회로 후원금을 보내며 주민투표를 지원했다.

8 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가사지원분야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실제 산업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NCS가 개발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미 개발된 NCS 중 66%(566개)가 남성들이 많이 일하는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돌봄으로 정의 운동을 펼쳐온 한국YWCA연합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가사지원분야 NCS 개발을 맡아 2015년 7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연구기간을 거쳐 가사지원분야 NCS 개발을 완료했다. 앞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적용과 현장에서의 채용확대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시간제 가정부로부터 시작된 돌봄 직종이 국가표준직업능력 분류 체계에 들어감으로써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직종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0 위 제19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내년이면 20회를 맞이하는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은 시청자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제작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고자 제정한 상이다. 공정성과 시의성을 담은 프로그램과 방송제작진을 격려하는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제19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은 4월 24일(금)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대상의



영에는 JTBC 보도특집 '여객선 세월호 참사 보도'에 돌아갔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현장 소식을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발빠르게 취재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받았으며, 현장 생중계, 전화인터

뷰, 심층탐사,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취재방법을 활용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 남아 꾸준한 취재로 보도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뉴스의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9 위 2015년 찾아가는 싱크머니 버스

2015년 신설된 '찾아가는 싱크머니 버스'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주년을 맞는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싱크머니'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금융교육의 혜택이 적은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청소년들이 생산, 판매, 소비, 저축, 기부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금융이 자신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상과 가까이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9개 지역에 14회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내년에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싱크머니 프로그램은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가치관 함양과 셀프리더십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금융 지식의 함양뿐 아니라 태도와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는 YWCA가 되어야

회원YWCA 이사로 YWCA 활동을 시작해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과 회장을 역임한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복지사업단 이사장. 올해로 40년째 YWCA 활동을 지속온 강 이사장이 그 오랜 시간동안 경험한 YWCA는 어떤 모습인지 김경희 실행위원이 만나보았다. (정리: 편집실)



강교자 명예연합위원 약력

1975	전주YWCA이사, 전주YWCA부회장
1988	대한YWCA연합회 청소년위원회, 지방위원회 위원
1991 - 1995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서기, 성폭력상담위원회 위원장
1994 - 1995	YWCA세계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사무국장
1995 - 2001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2003 - 2014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실행위원, 기획위원장
2008 - 2011	한국YWCA연합회 회장
2014. 2 - 현재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2014. 6 - 현재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김경희: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사장님께서 1975년 전주YWCA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이래로, YWCA와 맺은 인연이 올해로 40년째 되셨습니다. 이사로 활동을 시작하신 이후 사무총장(실무자)로, 또 회장으로 역임하셨는데요.

강교자: 제가 1975년 전주Y 대학Y 추수감사예배 강사로, 그리고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야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고한성혜 회장님의 끈질긴 회원증모운동의 결과로 Y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사로 부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지요.

1982년에 남편의 사역지인 포항으로 갔는데, 그 1년 전에 포항Y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주Y 부회장이라는 이름표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항Y 가족이 되었지요. 여성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을 비롯하여 여성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여러 강좌들을 열심히, 참 행복하게 활동했지요. 1987년에 서울로 오면서 연합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경희: 선생님께서 그간 YWCA에서 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활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강교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996년부터 북한에 분유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통일을 위한 기도, 교재연구 등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직접 북한과의 교류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여성단체로는 YWCA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경직된 남북상황이었지요. 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 아주 진지하고 열띤 토의 후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남한 어머니의 마음을”이라는 타이틀로 분유보내기 운동을 시작하자는 결정을 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때 우유 한 통에 3천원이었는데, 티켓을 만들어 판매하는 모금운동을 전국 회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였고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았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순식간에 수백 통의 분유를 지원받았으니까요. 처음 적십자사에 전달했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분유를 두 차례인가 북한으로 보낸 후에 북한 쪽에서 탈지분유로 바꿔 보내달라는 연

락이 왔어요. 북한 아이들이 지방질을 너무 오랫동안 안 먹었기 때문에 전지분유를 먹고 나서 설사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YWCA가 이 운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속해온 것이 감사합니다.

김경희: 세계YW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1995년 한국에서 열린 YWCA 세계대회의 한국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셨지요. 저도 그 때 수월Y 자원지도자로 세계대회에 참가하면서 한국 YWCA가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신다면요.

강교자: 1995년 YWCA 서울 세계대회는 세계YWCA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였지요. 세계 여성지도자 서밋을 포함해서 기간이나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긴 시간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00여 개 국가에서 1천여 명 넘는 회원들이 참석했고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주관하는 국제회의는 그리 흔하지는 않았기에 의미와 보람이 컸지요.

첫째로 전국의 Y 자원지도자 400여 명 이상이 세계대회를 참관하면서 세계의 지도력들을 직접 만나고, 세계Y 속에서의 한국Y, 한국Y 안에서의 세계Y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고요. 다음은 세계Y 안에서 한국Y의 위상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에 빠져서 성과나 기쁨을 잘 몰랐는데, 1999년 이집트 카이로 세계대회에 갔더니 참석자들이 계속 서울 대회를 언급하며 칭찬과 함께 한국Y를 인정해주니 우리들의 수고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도 느끼게 되었지요.

대회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였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지요. 언어소통이 가능한 국내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20명을 모집해서 훈련시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때 대학생 봉사자로 Y와 인연을 맺은 지도력이 지금 연합회 실행위원으로, 실무자로 함께 Y를 섬기고 있음이 큰 열매이겠지요.

김경희: 역사적으로 YWCA가 축첩폐지운동, 문맹퇴치운동 등 시민단체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활동의 중심에는 기독교성을 가진 여성지도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여성운동 혹은 기독교여성 리더십은 어떤 영성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제안해 주신다면요?

강교자: 저는 YWCA가 기독교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으로서 사회에서 고립된 아웃사이더가 아닌, 사회 속의 교회로, 세상의 빛


으로 기독교성에 기초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자기 성찰, 그리고 노력의 과정이 날마다 필요한 이유겠지요.

기독교여성 리더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근거한 영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업이든지, 그 목적과 방법이 진리에 근거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김경희: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한국YWCA의 100주년을 준비하며 YWCA가 붙잡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교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배들이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의 후배라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우리는 선배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과연 100년이 지난 뒤 우리 후배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볼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10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한 시대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인데, 역사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 챕터가 열리지만, 책의 타이틀이나 저술 목적은 변하지 않지요. 장르는 바뀌겠지만 본질과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불변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실천해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원하시는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우리의 고민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겠지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제가 수십년 Y를 위해 봉사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 진솔된 고백은 Y를 통해서 제가 유익함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제 삶의 폭과 길이가 많이 넓혀졌지요. 제가 끼친 영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Y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특히 Y에서 만난 많은 분들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누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지만, YWCA만은 더 따뜻해지고, 더 포근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YWCA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평등인가

-2016 한국YWCA 성평등운동을 제안하며

최근 여성혐오 정서, 역차별 문제제기 등의 이슈들이 한국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YWCA는 2016-2017 성평등운동에 관한 제안의 목소리를 다음의 칼럼으로 만나본다.

글 |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평등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 중에서도 그렇다. 특출한 사건을 대서특필하는 언론보도만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대졸 여성 취업자 비율이 50.6%로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으며,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64.9%이고,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여성은 37.4%로 사상 최대이다.

그러나 단순통계를 넘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현실이 나타난다. 지난 25여 년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겨우 3%포인트 정도 상승했을 뿐이며 성별간 격차는 OECD 회원국가 중 최고이다. 고학력 여성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취업자 중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감소하는 것은 취업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려준다.

경력단절을 나타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다. 행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4.5%, 4급 이상은 11.0%에 불과하다. 외교관 시험에 여성합격자가 많지만 전체 외무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29.1%에 불과하다. 상장기업 임원 중 여성은 2%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의 ‘2015년 세계 성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비슷한 일을 할 때 임금 평등성’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 116위로 매우 불공평하다. 우리나라 5대 강력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2000년도에 70.1%였는데 2013년 12월에는 85.6%로 뛰었다. 폭력은 권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속성을 가지므로, 폭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은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이다. 종합하자면 일부 분야에서 젊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평등이 다 이루어졌다’는 인식은 오해이고 환상이다.

그럼에도 성평등을 기계적으로 인식하고 보정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모 자율형 사립고는 성적 이외 가산점으로 ‘보정점수’를 부여해 90명의 학생을 합격시켰는데, 그 혜택을 받아 합격한 90명 중 78명이 남학생이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9급 교육행정직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남성 합격자가 23.9%에 그치자 (한쪽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10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두 사례 모두 여성들이 시험을 잘 보기 때문이지, 남성을 차별한 결과가 아님에도 그

러한 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누적된 차별의 역사를 보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정신에 위배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주장의 속내는 저항하는 남성들을 달래려는 것이다. 여성차별 문제는 대부분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이 남녀의 기계적 평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유엔이 강조하듯이 여성정책은 기본적으로 권리에 기반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인 성평등을 목적으로 이전에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되고 담보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차별적 제도와 실천, 무의식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기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며 성평등한 대안을 구상하고 실행시키고자 하는 일은 ‘변혁적’일 수밖에 없다. ‘변혁’은 ‘아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논쟁과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자. 더 강력한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고 치밀한 실천계획을 짜자. 성평등 사회의 비전을 만들어 여성들이 먼저 공유하고 확산하자.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은 우리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의 성 인지적 개입과 더불어, 개개인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상대의 성(궁극에는 타자)과의 관계에서 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YWCA는 성 인지적 정책 개입을 위해 회원의 성 인지력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성 주류화 제도(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성 주류화 제도들은 그 자체가 복

잡하고 기술적이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당 기간의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정책과정 또한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성 주류화 제도의 정책 적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려면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다. 즉, 정책·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기획·결정·운영 방식, 그 근거가 되는 법령, 홍보 및 평가 방식 등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관점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어렵다. YWCA의 정치력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결집하고 지역 단위의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굵직굵직한 정책(예: 산업/일자리/도시재개발 사업 등)을 성 인지 관점에서 점검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나와 이웃의 다른 여성(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행정에 요구하는 일, 지역의 돌봄 인프라 점검,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점검, 지방의회 모니터링과 지역의 예산이 우선순위에 합당하게 집행되는지 살피는 일 등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안전을 강조하지만 여성안전은 점점 더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국 곳곳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들이 있지만 지역의 핵심 일자리 사업에 통합되지 못하여 큰 실효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에 밀착된 성차별과 폭력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개인의 일상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일은 자신의 무의식적 편견을 맞닥뜨리는데서 출발한다. 사람은 기존의 관념에 기초해 주변의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고 범주화한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 관행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개선을 위한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2030 일하는 여성,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일 발표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개혁에 대해 '풀기 어려운 정책 과제'라고 평가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자 청년으로서 '노동'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한 진솔한 이야기를 만나본다.

글 |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열정페이, 무급 인턴, 삼포세대... '청년'에게 붙이는 이런저런 말들이 늘어나고, '청년'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발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정부도 나서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다. 인턴, 창업 등 불안정하고 취약한 위치일 수밖에 없는 일자리들을 제공하며 단기간에 고용이 늘었다는 지표를 올리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청년'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여성의 이야기는 없었다.

일하는 여성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70%에 달하고¹⁾, 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100이라면 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66.1,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36.3에 불과하다²⁾는 연구결과가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경험도 성별에 상관없이 같을 리 없다.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올해 우리는 '말하기대회'라는 장을 열어 일하는 20~30대 여성 스무명을 만났다.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먹고 살기는 괜찮은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들을 수 있었다. '청년'이자 '여성'으로 일하고 있는 20~30대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다른 경험'이 존재했다.

'여자라서' 겪은 경험들

인터뷰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남자인 게 스펙'이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여성이 '제외'되는 경험을 통해 남성보다 더 독하게 노력해야만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죽어라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었다.

20~30대 여성들이 겪은 '여성이라서' 제외되는 경험은 채용만이 아니라 일 경험 전반에 걸쳐 있었다.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도영은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팀에 배치된 첫날부터 "우리 회사는 여자가 승진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에도 여러 상사들에게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많은 회사에서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된다는 이유로 임금도 더 주고, 승진도 빠르게 시켜준다.

많은 인터뷰이가 현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결혼한다고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지만,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들이 불안한 이유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일하는 여자 선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인터뷰이가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면접을 봤을 때 결혼,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해당 분야에서 어떤 전망을 그리고 있는지는 묻지도 않았다고 한다. 인터뷰이들이 접한 많은 회사에서는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최대한 많은 업무를 맡기려고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임신, 출산, 육아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여성'은 능력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 배제되고 있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하지만 다들 힘든데 어찌겠냐는 한숨 섞인 낄두리로 그칠 뿐, 어떻게 해야 나의 상황이 나아질지 길은 보이지 않는다. 회사에는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어하는 건지, 그런 내가 이상한 건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나와 비슷한 다른 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무언가가 필요하다.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만 힘든가? - 20~30대 여성들의 일 이야기' 소책자가 나왔다. 정책토론회 '청년 노동, 말하는 대로 - 20~30대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는 연구자, 청년 단체 등 청년들의 노동 현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20명의 인터뷰이가 들려준 경험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대안이 가능할지 논의했다.

'금수저'라도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쉽게 얻을 수 없는 계급과 학벌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출발선. 늘어가는 파견직, 계약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잡기 위해 스펙을 쌓을 시간도 돈도 없는 청년들. 그나마 간신히 얻은 직장에서는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으로 현재를 저당 잡히며 제자리걸음을 해야 하는 현실.

모두가 힘든 현실에서 '청년 여성'에게는 '나이 어린 여자'라는 취약한 위치가 더해진다. '청년' 문제가 지속적으로 공론화되는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청년'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또 다른 '사각지대'다. '여성'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고, 승진에서 제외되고, 임금을 적게 받고, 성희롱을 당하고,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멈춰질 때, 그제야 우리는 일할 만하다,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뷰를 통해 그녀들을 만나면서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대로는 괜찮지 않다고 힘주어 말하는 그녀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정책토론회를 찾은 한 인터뷰이의 이야기대로 '당장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그녀들에게는, '매일 부딪히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 상황을 거쳐 가는 그녀들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 

1) 김현미, 2015. "청년 여성의 일과 이동의 생애사: 해법의 모색" (한국여성민우회 정책토론회 청년 노동, 말하는 대로 - 20~30대 여성들의 일 경험을 중심으로) 자료집. (장지연 2001, 김현미 2015에서 재인용)
2) 김현미, 2015. "청년 여성의 일과 이동의 생애사: 해법의 모색" (한국여성민우회 정책토론회 청년 노동, 말하는 대로 - 20~30대 여성들의 일 경험을 중심으로) 자료집. (김유선 2008, 박옥주 · 손승영 2011에서 재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

평화를 전하는 회원YWCA의 이야기

연말연시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평화를 나누며 실천하는 회원YWCA 소식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온다. 평화를 전하는 회원YWCA의 이야기를 통해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YWCA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정리: 편집실)

김해YWCA, 김해시에 이웃돕기 성품기탁

김해YWCA 정재연 회장과 회원들은 12월 9일(수) 김해시청을 방문해 추운 겨울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내의 100벌을 기탁했다. 이 성품은 김해YWCA 회원들이 지난달 일일찾집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기탁된 성품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해YWCA는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일일찾집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목포YWCA,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예배 및 북한어린이돕기 분유저금통 전달식 가져

11월 23일(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목포YWCA 어린이집에서 원아들과 함께 추수감사예배 및 북한어린이돕기 분유저금통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날에는 지난 10월 8일부터 한 달동안 87명의 원아들이 조금씩 동전을 모은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북한어린이돕기 분유보내기 운동에 저금통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또한 원아들이 가져온 과일과 곡식은 경로당과 어린이전도협회에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하였다.

거제YWCA 둔덕골지역아동센터, 작은 음악회

지난 12월 8일(화) 거제YWCA 둔덕골 지역아동센터에서 재미 통통 우쿨렐레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여러 내외빈을 모시고 아름다운 음악회를 가졌다. 악기를 배우기가 힘든 시골에서 악기를 배우므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통하여 서로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음악회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나눔 공모를 통하여 지원받아 배우게 된 하와이 전 통악기로 우쿨렐레를 배워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주는 무대였다.



충주Y-틴,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충주Y-틴은 2015년 중점운동인 '탈핵'에 따라 연말 활동을 에너지 절약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단열재 뽁뽁이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기모잠옷과 화장지, 홍시를 구입했다. 그리고 11월 21일(토) 진행된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는 연수동을 시작으로 소태면까지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기모잠옷과 화장지, 홍시를 전달하고 창문에 직접 뽁뽁이를 붙여드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역사적 파리기후변화 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

글 |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탈핵운동센터 운영위원장,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기후 변화에 처한 인간의 얼굴

“14일 전 남편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립공원에 들어갔다.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이 범람하면서 농사짓는 일과 고기잡이가 불가능해진 우리 가족은 꿀 채취로 연명하고 있었다. 남겨진 우리의 아이들 또한 남편과 같은 삶을 살 것 같아 걱정이 된다.” - 22세, 호랑이에게 남편을 잃은 젊은 방글라데시 여성

“나는 38년 동안 600마리의 소를 기르는 낙농업자였다. 14개월 전 물 부족을 겪으며 위기를 당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비를 기다리던 나는 결국 농장을 포기하고 말았다.” - 서호주의 낙농업자, 60세.

“지금 우리 집은 바닷가와 불과 10미터 떨어져 있다. 1980년대 집을 짓던 때만 해도 여긴 코코넛 나무와 과일 나무가 많았다. 지금 이 나무들은 다 죽었고 내 땅 또한 좁아져서 우리 가족들도 도망가야 할 상황이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밖의 형제자매들이 만들어 낸 것 같다.” - 키리바시에 사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섬에 사는 가족

기후변화는 결코 기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바마 미 대통령,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등 뉴스에서나 만나볼 만한 인물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196개국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 뒤 공동의 책임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어 낸 이유일 것이다. 더 이상 ‘기후’가 아닌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마지막 협상안이 나오기 전 오후 시민들이 시위하며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구호문들이 붙어있는 에펠탑 모형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2015년의 지구

그렇다면 이번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 4만여 명의 세계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더 이상 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이다. 주최국인 프랑스는 끔찍한 테러와 극우파의 득세로 얼룩진 레지옹 선거를 동시에 치르며 13일간의 짧지 않은 회의를 이끌어야 했다. 다행히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12월 12일 토요일 오전, 예정보다 하루 늦게 발표된 합의문은 대표단의 기립 박수로 마무리되었고, 대회 의장인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가능한 선에서 가장 균형을 이룬” 결과물이라 자평했다.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정의로운, 역동적인, 공평한, 그리고 법적 강제력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폭넓고 깊었던 토론의 장

합의문이 기초한 대 원칙은 법적 강제력 이전에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절차이다. 이번 파리합의문이 교토의정서와 다른 점은 기후변화의 책임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게까지 나누어 질 것을 요구한 부분이다. 나아가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선진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국제 사회 공동 노력과 감시를 통한 자발적인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합의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강제성이 결여된 미완의 성과라는 평가를 비껴가지는 못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프랑스 국가공공토론회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지난 6월 6일 전 세계 76개국, 1만명의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심층 워크숍을 전제로 한 의견 개진의 기회로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세골렌 르와얄 프랑스 환경지속가



프랑스 환경부 세골렌 르와얄 장관이 주재한 여성과 기후 세미나

능개발에너지부 장관의 지적대로 참여를 통한 책임의 공유만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묻고 또 물었다. “기후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회에서 이 질문을 받아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세계 시민의 78%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 시민의 82%, 섬에 사는 시민 중 87%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44%와 49%에 그쳤다. 한편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한 시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명 중 2명은 기후변화 대응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 답했고, 특히 인도와 브라질 라틴아메리카 등 개도국의 경우는 평균 이상이였다.

또한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가 92년 이후의 유엔기후협상 결과물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비판한 나라는 유럽연합으로 80%, 북미 지역 89%, 인도 80%, 브라질 93%로 나타났다. 세계 시민의 63%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파리 회의에서 2도C 이하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유럽연합

이 74%로 가장 적극적이었고, 이에 반해 중국은 27%로 심하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기후 협상과 각국의 기여와 관련하여서는 기후 대응노력이 국가적 차원의 우선 과제이며 그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44%이고, 현재 우선 과제는 아니며,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46%였다. 79%의 응답자가 다른 나라에서 비록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여겼으며, 응답자의 50%가 각국은 다른 나라의 보고서를 서로 감시할 의무가 있어야 하며, 90%의 시민은 자국이 온실가스 배출과 약속 이행과 관련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교육이 YWCA의 과제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시민사회 측 참가자들에게 가장 불편했던 일은 우리나라 협상 대표인 환경부 장관의 조기 귀국과 이를 대신한 나경원 의원의 대표 연설 장면이었다. 각국 정상의 등장으로 시선을 끌었던 1주차 회의와는 다르게 12월 7일부터 시작된 2주차 협상은 분명 각국 장관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으나, 어느 회의보다 치열한 논의가 오갔던 협상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 협상 대표는 교체되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회의장 곳곳에서 민관을 넘어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 토론을 벌이는 다른 나라 대표들의 모습이 부러웠다.

정부의 공식 대표 이외에도 이번 파리 회의에는 '지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는 구호 하에 70여명의 시민 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던 특별하고도 중요한 회의였다. 그러나 참가자 간 원활한 소통은 없었으며, 한국의 기후 대응을 소개하는 공간 또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홍보전시관과 흡사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세계 7위의 탄소배출국이다.

국가별 이행목표 또한 전망치 대비 37%를 제시한 바, 국제사회로부터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요주의' 국가에 속한다. 석유, 천연가스,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등 화석 연료의 종말이 예측되는 가운데 각국이 경쟁적으로 탈핵, 재생에너지, 저탄소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원전 수출로 창조 경제를 운운하는 2015년의 한국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기후 대응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세계 시민의 78%가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이라고 했다. 실상이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음을 두고 지켜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 탈핵운동을 주도해 온 한국 YWCA의 역할은 이제 탈핵을 넘어 기후변화라는 좀 더 큰 틀 속에서 새롭고도 시급한 과제를 찾아야 할 때이다. 당장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에너지 정책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대안을 위한 해안도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농민의 70%가 여성이다. 전체 농산물 생산의 60~80%를 여성이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의 10%만을 가져올 뿐이고, 전체 면적의 2%도 채 안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남성에 비해 14배에 달한다. 기후 협상 과정에서의 여성의 배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여성과 더불어 우리의 미래 세대 또한 취약 집단으로 고려된다. '세대간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주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 등은 또 다른 무거운 숙제로 남겨졌다. 

길은 또 시작되고

글 | 유경훈 (청주YWCA 부장)

청주YWCA는 1965년 7월 11일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기독교여성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본부와 어린이집,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관, 여성종합상담소, 상록수, 사회적기업 올리, 생협,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하나님의 정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정의, 평화,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 한뜻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왔다. 그 길은 굽이굽이 반백년의 여정 속에 YWCA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헌신하신 이사와 위원, 회원, 그리고 실무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청년운동 선정

청주YWCA는 50주년 회년을 앞두고 기념사업 선정을 위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번에 걸친 포럼을 개최하고 선정 워크숍을 진행하여, 2014년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청년운동을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TF를 조직, 1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청주청년YWCA와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 설립을 결정하고, 이 일을 위해 청주YWCA는 매주 수요일 기도회를 열어 힘을 얻고 믿음의 반석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청년운동을 위해 2014년 '길은 또 시작되고'라는 주제로 재정모금행사를 통해 3천5백만원의 청년운동기금을 마련하여 청년운동의 기초를 세웠다. 지금

청주청년YWCA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기독교청년 아카데미, 박충의 연애상담소, 청년 청년을 만나다를 통해 청년주체를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장학사업으로 길·꿈·기회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청년주체를 세우고자 하였다.

비전을 세우고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청주YWCA

12월 9일(수), 지난 50년을 성찰하고 100년을 향한 여정을 위해 하나님과 회원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다짐의 시간을 갖는 창립 50주년 기



(왼쪽부터) 이명혜 연합회 제1부회장, 차경애 연합회 회장, 신영희 청주Y 이사, 이혜정 청주Y 사무총장, 정은경 청주Y 전 사무총장



이사항창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념예배, 기념식, 리셉션 순으로 이어졌다. 이해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먼저 50주년 기념 영상 상영이 있었고 70대 중경회장 이강순, 40대 한마음회원 권용연, 10대 Y-틴 전지희, 어린이회원 한지희가 정의, 평화, 생명, 사랑 나무를 들고 입장하며 기념식이 시작됐다.

조규숙 청주YWCA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청주YWCA의 50년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힘들고 어려운 청주Y 반백년의 여정은 오직YWCA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귀한 발자취를 남겨준 중경회장님, 명예이사님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관심과 참여와 지지로 함께 해주신 5천8백여 명의 회원님들, 이사님들,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의 기록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며 “100년을 향한 청주Y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으로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만들어 활기찬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청주Y를 설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청주Y를 발전시켜 온 선배 지도자들과 청주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YWCA의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승훈 청주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내빈 소개 후 배하순 테너(청주YWCA 합창단 지휘자)가 ‘You raise me up’을 감미롭게 들려줬다.

시상식에서는 정정자 중경회장이 50주년 기념대상을, 이순득·최현자·이필남·노연우·정동신·김성자·신영화·이강순 중경회장, 진안순·신영희·정

은경 전 사무총장이 공로패를, 민경식 명예이사, 주서택 청주 주님의교회 목사, 정종택 전 국회의원, 양진현 삼포건설 대표이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희년을 맞은 청주YWCA의 이사들은 이 사회의 희년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을 합창하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이날 임원 4명과 청년대표 4명이 청주YWCA 청년운동 비전선포문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비전선포문은 ‘청주청년YWCA는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대적 과제에 참여한다. △경쟁의 사회를 공생과 협동의 사회로 바꾸어 건강한 생존과 인권이 실현되는 청년 일터를 세운다. △인류에 대한 다양성 상호존중성, 책무성을 가지고 공감, 연대, 협력, 나눔이 있는 청년문화공동체를 형성한다. △하나님과 사회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회적 영성을 기르고, 공동체 안에서 삶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주청년YWCA를 설립하고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의 문을 열어 청년들의 건강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간다는 청주YWCA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청주YWCA 회원들과 참석자들은 함께YWCA 회가를 제창하고, 100년을 향한 길 앞에 서서 새 희망을 기약하며 기념식을 마쳤다. 이어진 리셉션에서는 김옥순 부회장의 사회로 축하 떡케이크와 커팅과 다과 나눔이 있었다. 

가사지원분야 NCS 개발로 직업으로 인정받는 계기 마련

2015년 11월 20일(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가사지원분야 개발 최종보고회가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가사지원분야 NCS 개발 완료에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글 |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가사지원분야, 직업으로 인정받다

내년 12월이면 서울YWCA가 시간제 가정부 직종을 개발하여 11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일자리를 앞선한 지 50주년이 된다. 시간제 가정부, 오늘날 정식명칭으로 가사지원 분야라 일컫는 이 직종은 이 후 간병사, 산모신생아, 아기돌보미 등의 직종을 파생시킨 원직종인데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 모로 한결같다.

가사지원 분야가 이토록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적용조항 11조 1항에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채 50여년을 지내 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2015년 11월 20일(금)에 가사지원분야가 드디어 국가직무능력안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영리·비영리를 총망라해 구성된 11명의 연구개발진이 가사지원분야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NCS 관

리시스템에 등재한 것이다.

가사지원분야, 9개 능력단위, 31개 능력단위요소로

가사지원분야 NCS 개발 기간은 2015년 7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39일이 소요되었으며, 개발인력은 분야별 워킹그룹 심의위원 9명, 개발위원 12명, 내부 연구원 3명 등 24명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개발되었다. 가사지원분야 NCS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정의

가사지원은 가정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청소, 빨래 등의 간접적 대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2. 능력단위

가사지원분야 직무와 9개 직무에 따른 31개 능력단위를 개발한 다음 능력단위요소별 적용범위와 작업상황, 평가지침과 직업기초능력을 정리하였고, 각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와 지식·기술·훈련을 정리함으로써 완료되었다.

여성 일자리에 대한 관심, 성평등 인식개선 필요

글 | 편집실

연합회는 12월 14일(월) 오후 3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광역단위 일자리 정책 성주류화 현황에 대한 YWCA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2014년도 성인지 예·결산서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일자리 사업이 성평등하게 계획, 수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발표에 나선 한국YWCA연합회 한혜경 연구원은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목표와 전략, 세부계획 수립 시 성인지 통계를 활용한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하면서, 성인지 통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였다.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사업 중 일자리 사업의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10% 이하로 적었고,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여성 일자리 유형이 취약계층, 경단여성 등 특정계층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편중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인지 예·결산서 내의 사업별 성평등 효과를 작성주체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며, 전담인력, 컨설팅 인원과 예산 등 성주류화 추진체계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성주류화 추진체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여성일자리와 성평등'에 관한 이슈발제에서 "향후 한

국의 일자리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여성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성평등 목표를 우선적으로 정하고 산업구조, 정책지원, 인력육성, 고용형태 등 보다 광범위한 여성일자리 정책 범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여한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가 UN에서 성 주류화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기로 한 지 20년이 되는 해임을 되돌아보면서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성 주류화 제도 정착 정도는 매우 높으며, 과제 수나 정책수행 분야가 일자리뿐 아니라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성 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인력과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주체들간의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시민단체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능력단위(수준)	능력단위요소	수준
가사관리 및 설계(4)	정보수집 및 분석	4
	서비스 설계	4
	모니터링 및 평가	4
	교육지원	4
가사기본관리(3)	업무계약 및 고객상담	3
	업무과정관리	3
	사후관리	3
방 청소(2)	방/거실 청소준비하기	1
	방청소하기	2
	거실청소하기	2
주방 청소(2)	주방청소 준비하기	1
	싱크대 청소하기	2
	주방 공간 청소하기	2
욕실 청소(2)	욕실청소 준비하기	1
	욕실 시설물 청소하기	2
	욕실 내부 청소하기	2
베란다 청소(2)	베란다/현관청소 준비하기	1
	베란다 청소하기	2
	현관 청소하기	1
빨래 및 다림질(2)	빨래 분류하기	2
	빨래하기	2
	빨래 개기	2
	다림질하기	2
특수 청소(3)	냉장고 청소하기	3
	유리창 청소하기	3
	커튼/블라인드 청소하기	3
	장난감 청소하기	3
정리 수납(3)	옷장 정리하기	3
	주방 상하부장 정리하기	3
	다용도실 정리하기	3
	신발장 정리하기	3

3.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수준

수준	가사지원	국가기술자격예시	학위예시
8수준		기술사/기능장	박사
7수준		-	-
6수준		-	석사
5수준		-	-
4수준	가사지원 관리자	기사	대졸
3수준	가사지원 숙련자	산업기사	전문학사
2수준	가사지원 기능자	기능사	고졸
1수준	-	-	고졸미만

교육훈련기관 적용과 채용확대가 관건

지난 2014년 12월, NCS 기반으로 2002년부터 개발된 1천1백여 개의 직종은 철저하게 제조업 중심이었다. 이에 본회는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여성, 특히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돌봄 직종-가사, 간병, 산모도우미-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 현재 가사지원 분야는 한국YWCA연합회가, 산후보육분야는 여성인력개발센

터연합이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연히 가사지원분야와 산후보육분야의 NCS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66년 시간제 가정부로부터 시작된 돌봄직종이 국가표준직업능력 분류 체계에 들어감으로써 명실공히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직종이 되었다는 점과 약 7천여 개에 달하는 영리·비영리 관계기관의 대표주자들이 협력하여 가사지원분야 업무를 표준화시킨 것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여성직업군에 대한 NCS 체계 마련 등 과제 남아

그러나 NCS 제도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과제와 교육훈련기관의 적용과 현장에서의 채용 확대가 관건이라는 것 외에 직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우려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타깝다.

이번 가사지원 분야 개발과정에서 여성직업군, 특히 돌봄 직종이 기존 NCS 직무 개발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업무체계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여성고용과 복지의 관점에서 돌봄 직종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발견했다. 즉, 기존의 NCS 개발체계와는 달리 여성직업군에 대한 NCS 개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비공식 노동과 단순노동 등의 분야에 대한 NCS 제도마련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성직업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집중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중장년여성들에게 무료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가사지원 분야 NCS개발을 통해 '(가칭)YWCA 가사돌봄 50년 직업사' 말미에 이렇게 쓰여지는 성과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전국 30만 가사노동자들이 염원하는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는 지름길이었다". 

정책개선 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노영희 여성가족부 사무관은 “성인지 예·결산서 제도 정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온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인지 예·결산서의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를 위한 긍정적인 사례가 공유되고 확대되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손은성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는 컨설턴트 역량 강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사례로 제시하고, 예결산서 작성 이후, 모니터링과 정책개선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은영 대구YWCA 국장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전문기관들뿐만 아니라 정부, 의회, 중간지원조직들의 성인지 정책 정착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감수성 증진 등에 YWCA 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말하였다.

이하나 여성신문 차장은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른 한국의 경제 활동 참여와 기회 순위가 125위로 가장 낮고, 특히 남녀 임금의 격차가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고, “성평등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여성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단녀’로 일반화하는 일자리 정책에서의 용어부터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역여성고용협의체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장시간 근로 문화의 개선,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조성,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의 인식개선을 제안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광역시·도 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모니터링과 지역별 간담회를 열었던 회원YWCA 관계자들은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성 주류화가 시급하며, 성평등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성평등한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는 데에

민간단체, 정부, 연구기관들이 협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성인지 관련 용어 정리

1. 젠더(Gender)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性)을 말함. 사회적으로 구성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 여성과 남성의 관계,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일련의 특징 및 행동이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을 말함.

2. 성인지(性認知)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의 차이를 인식하며, 성별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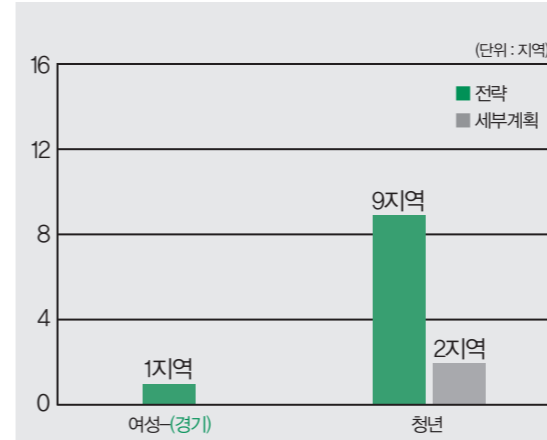
3. 성평등 정책(gender equality policy)이란? 정책과정에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통합하며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을 말함

4. 성주류화(性主流化, Gender mainstreaming)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새로운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것으로, 성평등 이슈를 정책의 모든 단계에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성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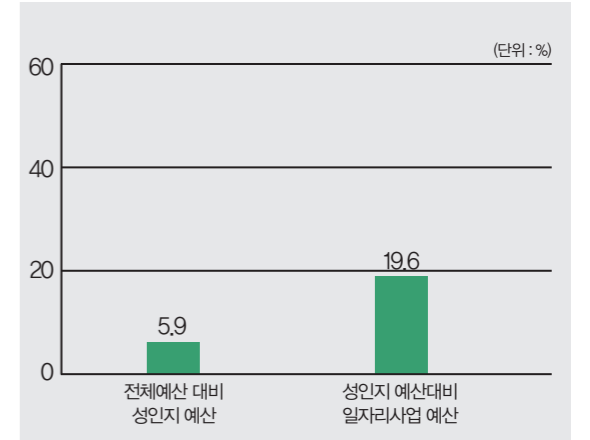
5.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주요 도구

- ① **정책 전담 기구:** 성 주류화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정책 전담 기구
- ② **성인지 교육:** 정책 담당자들의 성인지적 관점 및 정책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정책기획, 집행, 평가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기 위한 것.
- ③ **성인지 통계(성별분리통계):** 젠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서 성별로 분리된 통계 구축 및 젠더 이슈를 위한 성인지적 통계 개발. 성별분리통계는 거시통계 뿐 아니라 회의 참석자, 교육생 등 업무 보고나 실적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필요한 과정임.
- ④ **성인지 예산:**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
- 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 집행, 평가할 때,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특정 성(性)에 대한 편파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성 분석을 위해서는 성별 분리 통계, 성인지 예산분석 등 모든 과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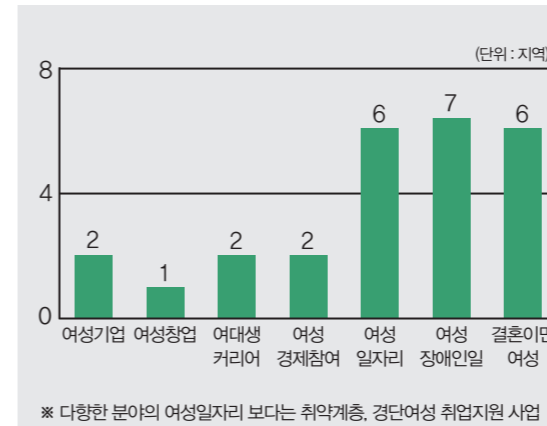
〈성인지 결산서의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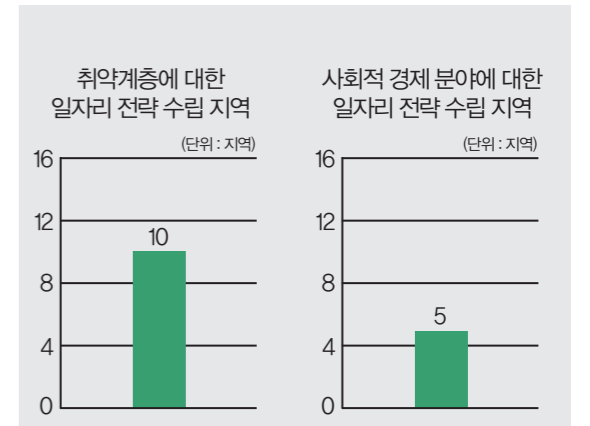
〈표 1〉 여성,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전략·목표 수립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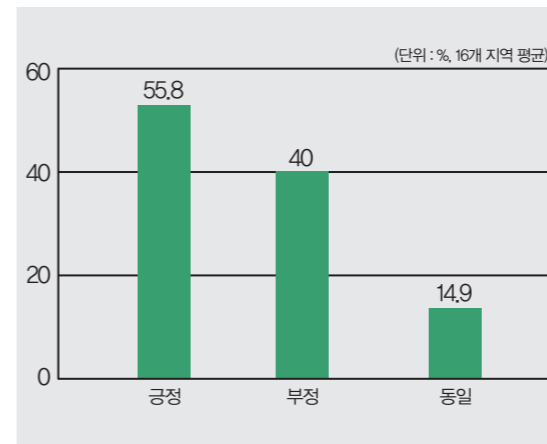
〈표 2〉 성인지 예산 규모 및 일자리 예산 비율



〈표 3〉 여성일자리 사업 유형



〈표 4〉 일자리 목표 전략 수립 분야



〈표 5〉 성평등 효과 분석

지역명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공공근로	-	-	-	-	100	-	60	-
자활	-	32	-	72	72	60	70	65
노인일자리	-	60	69	60	66	60	50	68
지역공동체	70	-	-	-	67	60	60	-
지역맞춤형	30	-	12	-	-	-	-	-
지역명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제주	울산	인천
공공근로	-	60	48	-	60	-	-	60
자활	-	-	-	-	-	-	-	-
노인일자리	37/68	60	64	63	-	-	65	-
지역공동체	-	50	-	45	-	-	-	97
지역맞춤형	-	-	-	51	-	-	-	97

〈표 6〉 광역시도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여성 수혜율

우수 사회적기업과 활성화 기관 수상

사회적기업의 자립 및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적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4년. 2014년부터 한국YWCA연합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일(화) 제2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을 열어 전국의 '착한' 기업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글: 편집실)



'착한 기업'이라고 불리는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첫 해인 2007년에 50여 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은 2015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1,380여 개이며, 전 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이 1,700여 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근로자 숫자도 2007년에는 2,500여 명에서 2015년 현재에는 31,000여 명에 이른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 민관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

네트워크에서는 YWCA, YMCA,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정부, 기업, 사회적기업 및 유관단체들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전국 15개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에서는 지난해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를 제정하여, 최소 3년 이상 운영을 지속해 온 사회적기업 중 시의적 가치창출 및 제고에 기여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사회적기업 붐을 조성하며 우수 사회적기업 사례를 확산하고자 노력해왔다.

'2015 제2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은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12월 1일(화) 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상 부문으로는 사회적기업활성화 광역시도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각 지역의 우수 사회적기업에게 수여하는 '우수 사회적기업상'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공헌한 기관에게 수여하는 '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으로 전국부문에 1개 기관(KDB나눔재단)과 지역부문으로 2개 기관(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이 수상했으며, '우수 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총 14곳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우수 사회적기업상

지역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내용
대구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대표: 강현구)	급식, 도시락, 뷔페사업, 마을축제 및 텃밭 운영
대전	위즈온 협동조합 (대표: 오영진)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 및 유지보수, 호스팅
부산	에코언니야 (대표: 박숙경)	친환경 제품, 리폼가방, 천연비누 등 제조 판매
울산	맑은기업 (대표: 황희)	장애인표준사업장, 문구, 사무용품 판매
제주	제주생태관광 (대표: 윤순희)	공정여행 프로그램
강원	정신재활용센터 (대표: 김인철)	자원 재활용 가공 및 처리
경기	수원굿윌스토어 (대표: 고명진)	친환경제품 제조 및 판매
경북	참살이 (대표: 김조나단)	산후조리, 재활용 및 간병사업
경남	해피푸드(주) (대표: 김미숙)	도시락, 주먹밥 제조
전북	동그라미플러스 (대표: 구형선)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육포, 서각, 목공예 제품 등 판매
전남	(주)희망기움 (대표: 문상엽)	인쇄제본, 현수막, 사무용품 판매
충북	옥천살림협동조합 (대표: 신한중)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에 공급
충남	(주)다인돌봄 (대표: 권경연)	간병 돌봄 사업
서울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이미영)	친환경 공정무역, 유기농식품 판매


● 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

지역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내용
전국 부문	KDB나눔재단 (대표: 홍기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고용인프라 확산 지원
지역 부문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 (대표: 김상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문화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지역 부문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대표: 김태정)	사회적기업 생산품 직접 구매를 통한 매출 증대 기여, 사회적기업과 생산품 홍보

이 날 부산 지역 에코언니야 박숙경 대표는 함께 자리에 참석한 예수를 바라보는 동료들을 "언니들"이라고 부르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박 대표는 "중고령 여성들의 경험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10년을 지나왔다. 일을 하면서 이 분들 없이는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을 향해 언니들과 열심히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 (주)희망기움 문상엽 대표는 "지적 장애인들을 고용해 인쇄출판업을 하고 있다. 수도권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이 그래도 많은 편이라 판로 개척이 잘 되지만 지역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매출이 적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며, "내년에 5년간의 지원이 만료되는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민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전국부문 '사회적기업활성화 공로상'을 수상한 김명환 KDB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저희 KDB나눔재단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걸어가야만 하는 험난한 앞길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금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의 후원자로서 늘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남겼다.

'선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기업 자체가 가진 좋은 목적과 그 영향력과는 별개로 기업 존립 자체를 유지하기에 어려운 상황들과 마주하고 있다. 이번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수상을 계기로 전국의 건설한 사회적기업들이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더욱 알려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YWCA 청년 인터넷방송국 YWBS 10기를 마무리하며

2011년 시작한 한국YWCA의 청년 인터넷방송국 YWBS(YWCA's Broadcasting System)가 2015년 12월 18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10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글 | 전하예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YWCA 청년 인터넷방송국 YWBS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5년동안 평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YWBS 방송에 올려 퍼졌던 아나운서들의 고정 오프닝 멘트이다. 아나운서 지망생인 여자 대학(원)생들에게 방송의 기회를 주고, 한국YWCA를 모르는 20대~40대 비회원들에게 YWCA의 운동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YWBS 방송국, 아프리카TV라는 채널이 주는 편견과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매일 고정 청취자 수는 평균 30여 명 정도였고, 지난 5년간 YWBS 방송을 한 번이라도 찾아왔던 누적 청취자 수는 무려 28만여 명에 달한다.

2시간 방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

매일 두 시간씩 1인 PD 겸 아나운서로 방송을 진행해야 하다보니 아나운서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책임감도 상당했다. 1회 방송을 준비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3~4시간이 걸리고, 8기 아나운서 중에는 8시간이 걸려서 학교 공부보다도 더 집중해서 방송 콘텐츠를 준비한다고도 얘기했다.

양방향 소통을 중요시하는 YWBS 방송의 특성상, 일부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 앞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점을

호소해 온 아나운서들도 있었다. 하지만 처음 방송을 진행할 때는 두려움이 앞서 표정관리도 어려웠지만, 점차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것 또한 언론인으로서의 준비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10기 아나운서 선발 당시에는 경쟁률이 5:1에 달하기도 하는 등 YWBS 방송에 대한 아나운서 지망생들의 관심도 상당했다. 9기 활동을 마친 아나운서가 모 라디오 방송사의 최종면접에서 다른 여러 활동들보다도 NGO에서 아프리카TV 채널을 활용한 인터넷 방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활동이 끝날 즈음, 아나운서들로부터 가장 많이 얻게 된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길에서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는 것과, YWBS 멘토링 등을 통해 현직 언론인들로부터 아나운서 준비와 면접, 방송 생활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기에 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에 다시금 그 꿈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절실함이 생겼다고도 말했다.

한국YWCA의, 한국YWCA를 위한 방송


YWBS는 NGO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별풍선으로 얻은 수익금 전부를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기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자막으로, 또 퀴즈를 통해 별풍선 기부를 적극적으로 알렷다. 지난 5년간 많은 청취자들이 별풍선을 보내주셨고, 총 2백40여 만원의 기금을 YWBS의 이름으로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기부할 수 있었다.

아나운서들은 많은 공부를 통해 YWCA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 YWCA의 활동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매일 3시 시보를 통해 YWCA 소식을 전하다 보니 YWCA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이다. 9기 아나운서 중 탈핵에 관한 콘텐츠를 매주 전하고, 또 그것을 한국YWCA 네이버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편집을 직접 해주어 블로그와 SNS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했다.

기수별로 아나운서들은 YWCA의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는데, 1주년 맞이 YWCA 탈핵 불(火)의날 캠페인에는 9기 아나운서 전원이 참석해 명동에서 광화문까

지 이어진 거리행진에서 돌아가며 확산기로 호소문을 낭독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탈핵의 위험성을 호소했다. 또한 8기 이연주 아나운서의 경우 YWCA의 청년 대표로 UN CSW와 YWCA 세계대회 참가 자격을 얻어 YWCA의 청년운동과 국제운동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울YWCA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제 YWBS는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나운서들은 이렇게 좋은 방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함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YWCA 안에 속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YWCA 밖에 있는 청년들도 즐겁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생각해볼 것이다. YWBS를 거쳐간 50여 명의 아나운서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YWBS 아나운서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든지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대해 본다. 

10기 월요일방송 아나운서 권지윤 “초반에는 악플과 여러 말들로 인해 상처도 받았지만, 기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차 마음이 담대해졌고, 청취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제 매력과 차별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10기 수요일방송 아나운서 김신애 “방송을 통해 청취자분들에게 받았던 제 이름이 들어간 수많은 별명들, 그리고 방송 준비를 하면서 아나운서로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졌던 물음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YWBS 고맙습니다.”



10기 화요일방송 아나운서 김은경 “저는 사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YWCA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보시간에 뉴스를 전하며 YWCA의 활동과 목표들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더욱 큰 선한 영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0기 금요일방송 아나운서 이예복 “시청자들은 YWCA의 아나운서를 존중해주고, 오히려 서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와 소통하며 시시각각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Y방송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8회 YWCA 세계대회 핵 반대, 차별금지, 주창활동 계획 발표

이번 호에서는 2035년을 향한 전 세계 120여 개국 YWCA 회원들의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첫 여정,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함께 실천할 결의문을 소개한다.

글 | 최지혜 (한국YWCA연합회 국제팀 팀장)

YWCA세계대회는 향후 4년 동안 세계 120여 개국의 YWCA 회원들이 함께 할 공동의 비전과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는 2035년을 향한 YWCA 회원들의 여정에 첫 4년간의 비전을 세우는 것으로 젊은 여성의 리더십, 여성의 권리, 그리고 YWCA운동의 지속성 이 3개의 영역에 초점을 두어 주력운동을 결의하고 각 연도별로 운동 전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전 세계YWCA가 4년 동안 함께 할 YWCA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YWCA 결의문의 의미와 통과 절차

세계YWCA는 회원국YWCA와 함께 공동의 주창활동과 주력운동, 정책을 개발한다. 세계YWCA 이사회는 YWCA세계대회에 앞서 회원국YWCA에 결의문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고, 제안된 결의문을 YWCA세계대회 전에 공유한다. 제안된 결의문을 공유하는 것은 회원국YWCA의 주요 이슈를 알리는 것과 더불어 국제운동에 관심을 갖게 해준다. 더불어 제안된 결의문은 향후 주력 운동의 방향을 세우는데 초안이 된다.

제안된 결의문 중에서 세계YWCA 이사회는 전 세계 회원국YWCA가 함께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이슈를 다룬 결의문을 세계대회에 제출한다. 결의문은 세계YWCA의 비전과 목적, 주력 운동에 부합해야 하고, 회

원국YWCA의 회원들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과 실천과제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된 결의문은 1개 회원국 YWCA의 재청과 12개 이상 회원국YWCA의 지지를 받아야 YWCA세계대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번 YWCA세계대회에서는 3개의 중요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주창활동 계획, 차별금지, 핵무기와 핵에너지 없는 세상에 대한 것이다.

한·일YWCA가 발의한 핵에너지와 핵무기 반대 (Equal Denial of Nuclear Energy/Weapons) 공동결의문

한국과 일본YWCA는 공동으로 핵에너지와 핵무기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제출하였고, 뉴질랜드YWCA의 재청과 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 영국, 인도 등 총 12개 국가의 지지를 받아 본회의 제출하였고 투표를 통해 8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한국과 일본YWCA는 핵에너지와 핵무기가 여성의 안전, 건강, 존엄성을 침해하는 파괴적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YWCA가 핵에너지와 핵무기의 사용을 반대하고 핵 없는 대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의문을 발의하였다.

핵에너지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행 전략과 실천 과제로는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차별, 편견, 경제적 손실, 그리고 그 지역의 공동체 파괴를 수반

하는 희생을 요하는 구조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함을 알리는 것과 각 회원국YWCA의 정부에 핵무기와 핵에너지 정책을 폐지할 것과 더불어 지속 가능하고 대안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정책의 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속성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며, 여성의 정책 결정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핵 없는 세상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영국YWCA가 제안한 차별금지(Non Discrimination) 결의문

영국YWCA는 스웨덴YWCA/YMCA의 재청과 미국, 핀란드, 브라질 등 12개 회원국YWCA의 지지를 받아 ‘차별금지’ 결의문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차별금지’ 결의문은 그동안 세계YWCA가 채택해온 차별 금지에 대한 결의문들, 즉, 인종과 민족 차별철폐 결의(1967, 호주 멜버른), 인권과 인종(1975, 캐나다 밴쿠버), HIV와 에이즈(1991, 노르웨이스타방에르), 토착민의 인권(1995, 서울), 인권과 차별(2003, 멜버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2007, 나이로비)을 재확인하며 YWCA 회원국들이 이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발의의 내용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의 인종, 민족, 건강상태, 지위, 계급, 신분, 장애여부, 생활 방식, 연령,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신앙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연령대의 여성의 연대와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의문의 실천 과제로 제안한 것은 우수한 교육과 실행 방법, 캠페인, 프로그램을 전 세계 회원국YWCA의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소수의 여

성들과 그들이 속한 단체와 활발하게 협력하고, 차별과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여성이 연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 연령대의 여성들이 차별 없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여성을 향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들이 변화되며 여성을 차별했던 법과 관행들이 철폐되기를 기대한다.


캐나다YWCA가 제출한 세계YWCA 주창활동 계획(World YWCA Advocacy Plan)

캐나다YWCA는 호주YWCA의 재청과 캐나다, 영국, 필리핀 등 12개 회원국YWCA의 지지를 받아 ‘세계YWCA 주창활동 계획’을 제안하여 통과되었다.

발의 내용은 세계YWCA가 국제 단위와 지역 단위의 회의를 통해 4년간 주력 운동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력 운동 전개를 위한 운동 정책과 교육, 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행 전략과 실천 과제로 주력 운동 전개를 위한 세계YWCA의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시 주력 운동의 실행과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는 것이다.

전 세계에 있는 YWCA는 주력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주력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잘 뿌리내리고 또한 지역의 목소리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다양한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만 YWCA의 운동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전 세계YWCA의 회원들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년 동안 3개 결의문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실천 과제를 가지고 정의롭고 평등하며 폭력과 전쟁이 없는 국가와 지역사회, 나아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5 YWCA 성탄예배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가사지원분야 NCS 최종개발 완료

연합회 소식

2015 YWCA 성탄예배

2015 YWCA 성탄예배가 12월 10일(목) 오전 11시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주제로 ‘평화의 빛’, ‘고백과 성찰’, ‘나눔과 축복’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음악예배로 진행된 이번 성탄예배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고, 김재화 명예연합위원의 성탄시를 묵상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근거하여 초를 점화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올 한 해 YWCA 안에 주신 평화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헌금은 베트남 중남부지역 소수민족으로 종교박해를 피해 캄보디아로 피신한 기독교 난민인 몽타나르족을 위해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6쪽에)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이 서울 명동과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11월 17일(화) 서울YWCA, 11월 24일(화) YWCA 복지시설 기관장, 12월 1일(화) 북부지역위원회 회장, 사무총장이 주관했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총회 시기에 즈음하여 열린 캠페인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려는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나라가 여전히 핵발전 확대정책을 계속하고 있음을 밝혔다. 명동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탈핵 호소문을 낭독하는 버스에게까지 직접 와서 올해 이후 계속 진행되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을 직접 하기도 했다.

가사지원분야 NCS 최종개발 완료

2015년 11월 20일(금) 연합회는 NCS 최종보고회를 갖고, 가사지원분야의 국가직무능력안에 따른 표준안 개발을 완료했다. 가사지원분야 NCS 개발 기간은 2015년 7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39일이 소요되었으며, 개발인력은 분야별 워킹그룹 심의위원 9명, 개발위원 12명, 내부 연구원 3명 등 24명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개발되었다. 가사지원분야 NCS 개발은 돌봄직종이 국가표준직업능력 분류 체계에 들어감으로써 명실공히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직종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자세한 내용은 25쪽에)

연합회-지역위원회별 간담회

연합회는 전국 52개 회원YWCA의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5부지역위원회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5부 지역위원회에서 제안된 ‘위원 및 이사의 체계적인 지도력 개발’, ‘본부 중견실무자들의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시대에 맞는 회원중도 전략수립’, ‘정회원Y와 준회원Y별 체계적 교육지원 및 협의체계 수립’ 등의 정책과제들을 적극 수렴하여 2016년 2월 정기총회에 한국YWCA 2016-2017년 운영정책(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탈핵 특별강연 ‘기후변화 극복과 탈핵, 독일에서 배운다’

12월 1일(화) 오후 3시 연합회 강당에서 독일베를린자유대 정치학 박사과정에서 재학 중인 엄광희 씨를 초청하

여, ‘기후변화 극복과 탈핵, 독일에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탈핵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회원YWCA 사무총장, 실무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강연에서는 재생에너지 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핵발전소는 기후변화를 극복할 대안이 아니며, 탈핵사회는 실현 가능한 일임을 공유하였다. 특히 독일이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각성한 시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시민정치학교 등의 일상적 시민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가

11월 30일(월)부터 12월 12일(토)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 불리는 파리기후변화총회에 김은경 연합회 실행위원과 이윤숙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이 참가했다. 이번 기간 동안 기후변화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인 1.5도 온도상승 억제와 기후변화 협상에서 인권과 성평등, 기후정의의 관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액션에 참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전 세계 시민활동가들과 연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쪽에)

제2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개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2015 제2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이 12월 1일(화) 오후 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에서는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사회적기업 붐을 조성하며, 사회적기업 홍보 콘텐츠 확보 및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자 지난해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를 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0쪽에)

한국YWCA연합회-함께 나누는 세상 MOU 체결

연합회는 11월 26일(목) 남북평화재단 함께 나누는 세상과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 공동협력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의 대북지원활동을 위한 협력, 북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공동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국제여성평화걷기 사진전 공동주최

세계적인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넴,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어리드 맥과이어, 리마 보위 등 한국전 참전 16개국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함께한 ‘국제여성평화걷기’(2015 Women Cross DMZ) 사진전이 12월 3일(목)부터 8일(화)까지 서울 명동성당 1898 갤러리에서 열렸고 12월 10일(목)부터 30일(수)까지 경기 파주 민족화해센터 전시홀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전에는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 5월 24일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종단한 가슴 벅찬 순간들이 170여 장의 사진들로 기록되어 있다. 사진전은 2015 WomenCrossDMZ 한국위원회와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를 비롯해 경기여성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등 9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제13회 민족화해상 수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는 여러 단체들의 평화운동 활동을 격려하고 민족화해운동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민족화해상을 제정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제13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상 통일준비 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보다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고, 살림의 세상을 세워나가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화해와 평화를 앞당기도록 책임감을 갖고 평화를





2015 김필레리더십캠프



2015년 씽크머니 우수 프로그램·우수강사 시상식



'기억의 터' 건립선포식

등을 펼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

2016년 1월 29일(금)~30일(토)에 개최될 예정인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총회)' 준비를 위해 4부 지역별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11월 13일(금)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준비를 위한 TFT'를 구성해 전국협의회 재건 총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안을 마련했다. 전국협의회 필요성과 구성 방법을 알리고, 청년들이 전국협의회에 기대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한 4부 지역별 간담회는 12월 5일(토) 동부지역, 12월 12일(토) 서부지역, 12월 19일(토) 중부지역 간담회가 열렸고, 12월 30일(수) 북부지역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역별 간담회 자료와 사진은 대학청년Y 카페(<http://cafe.daum.net/youngyw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 김필레리더십캠프

김필레기념사업회와 주관하고 연합회가 주최하는 2015 김필레리더십캠프가 12월 16일(수)~17일(목), 18일(금)~19일(토), 각각 1박2일로 YWCA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정신여자중고등학교 학생 50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YWCA의 설립자이자 정신학교의 학생이자 교사였던 김필레 선생이 기독교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이뤄낸 업적들을 살펴보고, 이를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2015년 씽크머니 우수 프로그램·우수강사 시상식

2015년 12월 17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씽크머니'의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개최했다. YWCA 씽크머

니 우수 강사들은 청소년들과 한학기 이상 꾸준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면서 활동해왔다. 수상자로는 광주YWCA 문수정 강사, 인천YWCA 이경미 강사, 충주YWCA 진덕화 강사가 선정됐으며, 우수 씨티 강사로는 씨티은행 임직원인 김충곤 씨티강사가 선정되었다. 단체 부분에는 지역교육과 연계해 높은 교육 효과를 거두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전YWCA, 청주YWCA가 우수YWCA로, 우수협력기관은 사랑지역나눔아동센터가 선정됐다. 우수동아리에는 청주YWCA의 대학생 두드림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5년 민화협 회원단체 실무자 북·중 접경지역 연수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실무활동가들이 북한의 실제적 이해증진과 이를 통한 실무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2015년 민화협 회원단체 실무자 북·중 접경지역 연수에 조영미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부장이 참석했다. 12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3박 4일동안 중국의 단둥, 집안 등에서 열린 본 연수는 북한의 경제변화와 중국과의 관계,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특강과 현장방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 테러 사태 관련 프랑스YWCA 연대와 지지

지난 11월 13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한국YWCA는 11월 16일(월) 프랑스YWCA의 회장과 회원들에게 서신을 전했다. 이에 미리암 프랑스YWCA 회장은 11월 18일(수) 답신을 통해 프랑스에 연대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 한국YWCA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

연합회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건립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 단체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참여해 11월 25일(수)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선포식을 가졌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건립추진위원회는 남산 통감 관저터에 이땅의 아픈 역사를 새기는 평화와 정의의 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내년 8월 15일 '기억의 터' 기공식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디딤돌 1장에 1만 원의 후원 모금을 진행 중이다. 후원계좌는 1005-002-865914 정대협(기억의 터)이며, 자세한 문의는 02-324-0238번으로 하면 된다. 한편, 광복 70주년을 맞은 2015년,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념비 설치에 관한 결의서'가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이 여야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등정

· 제20회 소비자의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 국무총리상
구정혜 연합회 법인사무국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장
표효순 충주YWCA 팀장, 김정심 서울YWCA 모니터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여성가족부 장관상

- 최우수상
대구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우수상
부산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춘천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장려상
사천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청소년보호 유공자 표창
최정숙 대구YWCA 회장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전현숙 서울YWCA 사무총장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표창
최향숙 고양YWCA 중점운동회 위원

북한어린이돕기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현황

2015년 11월 1일 ~ 11월 30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 기부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청주Y), 고은희, 박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민혜, 권순복, 권인택, 권진, 김가현, 김건세, 김경희, 김기동, 김명희,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영자, 김은경, 김일곤, 김주영, 김재연, 김정린, 김주현, 김진용, 나윤지,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영수,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인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성동숙, 송록희, 신인숙, 심명자, 심은옥, 안은정, 안정희, 안혜진,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명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슬이, 이영미, 이명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A, 이지은B, 이찬진, 이행자, 이향재, 이혜진, 임강숙, 임국아,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전현주, 정경란, 정동신, 정순, 정용,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산나,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선, 홍수진, 홍현정, 황홍백(117명)	1,976,000
개인 기부	김미, 김수연, 김아원, 이종경, 전인선	253,3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성광감리교회, 약전평강교회, 반포침례교회, 한양대학교회여선교회	334,88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선교신우회	100,000
회원YWCA	순천Y, 창원Y	190,450
Y어린이집	서울Y가락어린이집, 광주Y어린이집	1,383,610
합 계		4,238,240

(북한어린이돕기 운동 후원계좌: 농협 301-0161-5540-1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북부

강릉YWCA | 정경진 간사

2015년 하반기 이사·위원 워크숍 11월 16일(일)~17일(화) 강릉YWCA 이사, 위원이 참석하...



동해YWCA | 안지원 팀장

2015 찾아가는 진로탐색 동해Y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인 꿈꾸지는 11월 16일(월)과 30일(월) 총 2회기에 걸쳐서 동해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



서울YWCA | 성지희 간사

제1회 미래사회포럼 서울YWCA는 2022년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미래사회를 공부하는 포럼을 시작한다...

속초YWCA | 정인숙 간사

광복 70주년 평화통일을 위한 어울림 합창제 속초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최북단지역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 12월 3일(목) '평화통일을 위한 속초YWCA 어울림 합창제'를 열었다...

인천YWCA | 최슬기 간사

Y-틴, 대학청년Y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Y-틴, 대학청년Y 총 60여 명의 학생들은 11월 21일(토) 오전 10시 인천 동구 송현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 및 독거노인 2가정에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춘천YWCA | 진소정 차장

YWCA-YMCA 연합예배 세계YWCA/YMCA 기도 및 국제친선 주간을 맞아 춘천YW/YM은 11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에 춘천YMCA 3층 강당에서 '그 곳에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연합예배를 드렸다...



경기

고양YWCA | 남궁혜경 국장

2015 직원워크숍 11월 14일(토) 직원 52명이 함께하는 직원워크숍을 진행했다. 문학기행의 일환으로 서촌에 위치한 이상의 집을 시작으로 운동주 하숙집터, 서정주가 머물렀던 보안서관, 운동주 문학관, 현진건집터, 환기미술관, 박노해갤러리를 차례로 탐방하였다...



작가들의 삶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와 삶을 연결하고 성찰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YWCA | 이정은 간사

취업캠프 개최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월 14일(토)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그동안 새일센터에서 교육받은 교육생들이 동아리에서 활동하였던 여러 과정들을 각 부스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천YWCA | 이지원 간사

창립 19주년 감사예배 11월 19일(목) 회장단, 이사, 실무자가 함께 모여 창립 19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관목회자 김우진 목사의 설교로 영성을 다지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앞으로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부천YWCA가 지역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렸다.

성남YWCA | 전아영 간사

성남시 공공시설 및 성인지예산 모니터링 간담회 성남YWCA에서는 성남시 공공시설 30여 곳을 여성 친화적 관점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성남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1월 16일(월) 성남시청에서 일반 시민과 시의원, 공무원과 여성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모니터링 보고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움하고자 하는 성남시와 뜻을 같이 하여,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수원YWCA | 정지영 간사

김치 2,000kg 지역사회 나눔
11월 25일(수)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의 후원을 받아 '2015 행복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외 10여 명의 임직원들과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6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2,000kg의 김장김치는 지역 내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에 전달되었다. 나눔을 실천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기대한다.



안산YWCA | 문성은 간사

청소년 사회적기업 연구결과 제안대회
'꿈꾸는 청소년, 사회적기업을 가다! 청소년 사회적기업 연구결과 제안대회'가 11월 28일(토)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 100여 명의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 대회는 중고등학교 동아리 10팀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

합을 체험하고 기업의 문제를 조사한 후 청소년의 관점에서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과 PPT자료를 통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대상인 꿈상은 신길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제안한 '어르신 전용극장의 수익증대를 위한 상품개발과 여가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안양YWCA | 안장희 팀장

당신 덕분입니다. 다시 만나 반가워요
안양Y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주년 맞이 6번째 행사로 12월 1일(화)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그 동안 센터의 실무자로 근무했던 분들과 강사,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분들을 초대하여 '당신 덕분입니다. 다시 만나 반가워요'를 주제로 진행했다. 50여 명의 참석자들과 센터 실무자들이 함께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동고동락했던 퇴사한 실무자는 '센터가 디딤돌 역할을 해주어 또 다른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일하고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였고, 조난영 전임 관장의 감회 어린 인사말에 모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실무자들의 댄스 공연과 특송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의정부YWCA | 이미진 간사

다래교실 '뮤직비디오&엔터테이너' 직업체험
11월 18일(수) 부천 아이지니어스에서 15명의 다래교실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이 있었다. 다래교실 청소년들은 '뮤직비디오&엔터테이너'의 직업에 대하여 뮤직 트레

이너로 활동 중인 전문강사의 강의와 실습지도로 직업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춤을 배우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신나는 경험으로 한껏 끼를 발휘하였다.

중부

논산YWCA | 권연정 간사

2015년 편지로 쓰는 한글사랑대회
논산YWCA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다문화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편지로 쓰는 한글사랑대회'를 개최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고향의 부모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한국문화를 더욱 빨리 이해하고 적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오프닝공연(카리노샤)을 시작으로 20명이 응모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7명이 자신이 쓴 편지를 직접 낭독했다. 대회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은 비록 서투른 글 솜씨였지만 간간 열성을 갖고 배운 한글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듬뿍 담아냈다. 이날 행사 후 다문화 회원들은 노래와 춤, 각 나라의 전통춤 선보였고, 참가한 가족들을 위해 직접 자국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 훈훈함을 더했다.



대전YWCA | 김지찬 팀장

테마가 있는 역사기행
11월 10일(화) 오전 8시 회원 80여 명과 함께 고창 선운사로 테마가 있는 역사기행을 다녀왔다. 천연기념물과 단풍이 아름다운 선운사를 방문해 가을을 만끽하고, 문화해설사와 함께 서정주 문학관을 관람하였다. 서정주 문학관은 선운마을의 옛 초등학교 자리에 건립된 곳으로 초등학교 건물을 개조

하여 미당 서정주의 작품과 작품배경, 생전 사용하던 각종 필기구 등을 잘 정리하여 전시하고 있었다. 이번 역사기행은 단풍과 시가 있는 평온한 가을 여행이었다.



제천YWCA | 이경희 부장

환경 지킴이 활동
제천YWCA는 수질보전활동으로 환경교육과 지역하천 주변 정화과 외래식물퇴치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환경지킴이 활동은 6월 11일(목)부터 11월 30일(월)까지 총 9회로 진행됐다. 하천과 주변이 정화활동으로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꾸준히 유용한 미생물인 EM만들기와 보급을 통해 제천 지역 내 하천과 하천 주변이 정화되길 희망한다.



천안YWCA | 정상란 간사

후원의 밤 '사랑 나눔 음악회'
11월 24일(화) 오후 7시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문화홀에서 한해를 보내며 천안YWCA 사업을 널리 알리고 후원자, 회원, 자



원활동가들을 위한 축복의 사랑 나눔 음악회가 열렸다. 공연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준 8팀의 출연진, 자원봉사자들과 객석을 꽉 메운 각계각층의 후원천사들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음악회는 선한 영향력이 넘치고, 잔잔한 은혜의 향기가 묻어나는 감사와 나눔의 현장이었다.

청주YWCA | 최지경 간사

평화통일강좌
11월 12일(목) 청주YWCA 강당에서 정지석 박사와 평화통일강좌를 함께 열었다. 평화통일 감수성 충전을 위한 강좌를 듣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다. 2014~2015 YWCA의 6대과제 중 하나인 평화통일은 더 이상 막연한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청주YWCA는 북한어린이에게 분유 보내기 운동으로 우유팩에 동전 모으기와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노력이 앞으로도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서부

광주YWCA | 손유영 부장

미래를 여는 청렴데이
광주YWCA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과 놀이를 통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6일(금) 광주 남구 진제



초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2행시 짓기, 나를 돌아보기, 청렴문구 등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참여한 학생들이 청렴의 6가지 덕목(정직, 절제, 책임, 공정, 준법, 배려)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렴데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포YWCA | 객수현 부장

이사·직원 연수 '불의날 캠페인' 참여
11월 10일(화) 이사·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제84회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이사·직원 연수로 다녀왔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서울 명동거리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 신고리 3호기 운영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호소문 낭독과 전단지 배포, 피켓홍보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탈핵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거리 서명 활동을 진행했다. 캠페인 참여 후 평가회를 통해 향후 탈핵운동 방향과 실천방안 등을 나누면서 이사·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목포YWCA, 덕인고 Y-틴과 함께하는 프리마켓
11월 26일(금) 덕인고 강당에서 덕인고 Y-틴 회원들과 지도교사들이 함께 준비한 프리마켓을 진행하였다. 겨울을 맞아 주



위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자 진행된 이 날 프리마켓에서 많은 관심 덕분에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물건들이 모두 판매되었다. 수익금의 전액을 북한어린이들기 분유보내기 운동과 지역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며 타인을 위해 나의 소유를 내어놓는 나눔을 실천하는 장이 되었다.

서귀포YWCA | 김수진 간사

여성친화문화 근로자교육
서귀포YWCA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월 23일 (주)엔아이케이 제주에서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근로자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근로자는 "평소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 고민이었는데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맺게 되면서 근로자교육이 무료로 지원되고, 강의 내용도 좋아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근로자교육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기업 협약에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친절교육 서비스교육, 직장 내 직장예절 및 의사소통 등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교육
11월 28일(토)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단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 활동진흥센터 이춘복 센터장을 강사로 '자발적 자원봉사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자발적 자원봉사의 중요성, 모니터링의 중요성,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의 필요성 등의 내용으로 교육하였다. 교육내용 중에 모니터링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 역시 사회 참여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모니터링 단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했으며 모니터링 단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돌아갔다.

여수YWCA | 박선주 간사

성인문해한마당 '숨씨자랑'
11월 25일(수) 회관 강당에서 여수YWCA 어르신 한글교실에서는 성인문해교실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숨씨자랑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초·중·고급반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갖고 닦은 한글 솜씨를 글과 그림을 통해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부끄러워하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자신들의 작품이 전시된 것을 보자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 해에는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숨씨자랑' 행사를 마무리했다.



전주YWCA | 김은진 국장

성인지 여성 리더 양성과정 교육 진행
전주YWCA는 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도모하고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지난 9월 5일(토)과 10월 15일(목), 11월 19일(목) 총 3회에 걸쳐 '성인지 여성 리더 양성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김미숙 전북발전연구원 전담연구원과 이혜숙 한일장신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총 100여 명의 교육생들에게 성 평등과 성 인지 교육을 통해 성 인지 관련 지역사회 여성 리더를 발굴하여 양성하는 기획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YWCA | 이유리 간사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2016 민들레회원증모 개화식
1955년 1월 21일 창립하여 올해 6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3일(금) 오후 7시 이사, 실무자와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2016 민들레회원증모 개화식'을 개최했다. 총 4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개회예배, 2부 창립 60주년 기념식, 3부 2016 민들레회원증모개화식, 4부 만찬 및 코이노니아로 진행되었다. 2부 기념행사에서는 제주YWCA가 걸어온 60년의 발자취 영상 상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축하공연, 축사로 진행되었으며 60년 동안 제주YWCA를 위해 헌신하신 명예이사에 대한 표창패 및 감사패 시상식이 있었다.



김해YWCA | 배정숙 부장

2015년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11월 17일(화)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총 53개 업체,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13개 업체가 이날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삼명정밀, 대원플라텍(주)이 우수기업 표창장을 수상했다. 여성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등하고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진행되는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은 2009년부터 시작해 2015년 현재 총 241개 업체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YWCA | 이수빈 간사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11월 20일(금)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점 12층 직원식당에서 대구백화점 임직원들과 함께 '제13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대구백화점(대표이사 구경모)의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대구YWCA의 자원지도력과 자원봉사자들 20여 명이 함께 했다. 대백 김장 나눔 행사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김장김치 130박스(650kg)를 만들어 중구청 관내 사회 시설과 대구YWCA 청소년 쉼터에 전달했다. 이 행사가 더욱 확대되어 지역사회의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시외버스 이용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마산YWCA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을 맡아 2015년 소속회원 16개 단체와 함께 도내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 1,7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외버스 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버스 이용자의 고급화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과 시외버스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이번 토론회는 12월 9일(수) 315아트센터 강의실에 진행됐다. 박현주 마산YWCA 사무총장이 결과발표를, 차운채 마산YMCA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경남버스운송조합, 시외버스운행기사, 시민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개최
12월 3일(목) 2층 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외 지역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과 사천YWCA 이사, 직원들 총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매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김장 김치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온정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양산YWCA | 박경하 간사

'애들이 밥먹자!'
11월 10일(화) 오전 7시 양산중앙중학교 앞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은 양산Y가 NH농협 양산시지부의 후원을 받아 관내 중, 고등학교 중에서의 한 학교를 선정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의 일환으로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과 우리쌀 소비촉진을 도모하는데 취지를 두고 매년마다

진행해 왔다. 양산Y 임직원 및 회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손수 만든 주먹밥 1,400개와 음료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며 바쁜 일과로 아침밥을 거르기 쉬운 학생들을 격려하며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당부하였다.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울산YWCA | 김다혜 간사

울산YM-YW 기도 및 국제친선주간 연합예배
11월 10일(화) 오후 6시 울산YWCA 강당에서 '울산YM-YW 기도 및 국제친선주간' 연합예배를 드렸다. '희망이 있게 하소서!(Let there be hope!)'라는 주제로 이사, 위원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희망공 전달하기와 비행기를 날림으로써 다가오는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 고난과 분쟁 속에서도 희망을 실천하는 결의를 다졌다.



진주YWCA | 김소연 간사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세계YWCA&YMCA 기도 및 국제친선 주간을 맞이하여 '진주YWCA와 진주YMCA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11월 20일(금) 진주YWCA 대강당에서 드렸다. 나눔의 저녁 식사, 희망찬 예배, 사랑의 코이노니아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함께 식사와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HOPE, From Who?'라는 주제로

동부

거제YWCA | 홍윤정 팀장

이사·위원장·위원 교육
11월 3일(목)에 이사, 위원장, 위원교육을 진행하였다. 실무자와 이사진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회 오현숙 지역협력관이 YWCA운동의 가치와 YWCA헌장을 준수하며 활동가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주체가 되는 교육을 진행했다.



김동훈 목사(제2삼일교회)가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침묵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가졌다. 진주 YWCA와 진주YMCA가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고, 진주 지역에 희망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되기를 다짐했다.



진해 YWCA | 임정희 간사

아금바리리품 전시회

2010년부터 시작된 아금바리리품 수업이 올해로 벌써 6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금바리'란 일 따위를 해내는 데 있어 빈틈이 없고 다부진 사람을 말한다. 이 모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예 기법을 이용해 한 가구나 소품을 재활용하는 재색을 통해 버려지는 물건들을 새롭게 리폼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는 수업이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이 전시회는 12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열려 판매수익금으로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창원 YWCA | 정미영 간사

청렴특강, 청렴이 보이는 토론

11월 19일(목) 여성회관 창원관 5층 강당에서 올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약 300여 명의 창원 대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해 한창희 (주)EK청렴사회연구소장의 '청렴이 경쟁력입니다.'라는 주제 특강을 들었다. 또한 11월 23일(월)에는 대암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이 보이는 토론'을 진행



했다. 청렴이 보이는 토론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교시 경매, 2교시 두마음토론, 3교시 찬반토론을 거쳐 청렴마인드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청렴한 사고를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포항 YWCA | 송근선 간사

김장 물가조사

포항YWCA 소비자상담실에서는 김장철 물가안정을 위해 11월 24일(화) 포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죽도시장과 대형할인마트 7곳을 대상으로 김장철 물가조사를 실시했다. 양념류와 재료들의 치솟는 가격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겨울철 김장을 준비하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업체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과 지역의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활동이다.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활기가 넘쳐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5 월간<한국YWCA> 목차 색인

한국YWCA 100대 보물찾기

제목	필자	월	쪽
YWCA를 상징하는 부조		1+2	
샘골에서 YWCA로 보낸 유언장		3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의 시작		4	
제1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하영회(夏令會)		5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 회관 터		6	
YWCA 새 회가(1962년 개정)		7+8	
문맹퇴치운동을 위한 기정 공민학교 설립		9	
공창폐지운동		10	
부산 동래농예원		11	
성빈여사, 호남여숙 등 기독교 설립		12	

이달의 생각

광복 70년, 분단 70년 평화를 향한 YWCA 순례 행진	차경애	1+2	04
3월의 기억들	김기동	3	04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나라를 원합니다	백혜진	4	04
평화를 향하는 오월의 길목에서	이종임	5	04
평화의 좁은 순례길을 걷는 여성들	한미미	6	04
고리호기 폐쇄 성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한영수	7+8	04
여성의 온전한 참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김은경	9	04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국가직무표준(NCS)	이은영	10	04
100년을 바라보는 YWCA 기독교여성운동	함희경	11	05
평화세상을 꿈꾸는 순례의 길	이명혜	12	04

월례아침기도회

신년예배-너도 나처럼	장윤재	1+2	05
하나님의 평화	장윤재	3	05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장윤재	4	05
한 가지 부족한 것	장윤재	5	05
통일의 주인	조경열	6	05
손을 펴서	이세형	7+8	05
사막의 소리	이세형	9	05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김진희	10	05
공감, 사랑의 시작입니다	김진희	11	06
성탄예배-2015년 내게 주신 평화의 메시지	편집실	12	06

특집

2015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1+2	
다시 이야기하는 YWCA의 청년성		3	
돌봄노동은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4	
성인지 관점으로 보는 법제·개정 운동		5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사회		6	
에너지 과소비 사회를 돌아보며		7+8	
YWCA 평화운동,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9	
2015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		10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11	
2015년 한국YWCA 10대 뉴스		12	

기획

한눈에 보는 2015년 정기총회	편집실	1+2	08
2015년 회원YWCA 신입회장 소개	편집실	1+2	10
탈핵 운동과 함께 한 YWCA 정기총회 현장 스케치	편집실	1+2	12
2015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 현장스케치	편집실	10	11
2016~2017 전국 회원YWCA 탈핵운동 제안	편집실	10	14
2016~2017 전국 회원YWCA 성평등운동 제안	편집실	10	16

탈핵

월성호기수명 연장 반대	정서연	1+2	22
잊지말자 후쿠시마 멈춰라 월성호기!	한영수	3	15
안양YWCA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식	편집실	3	34
이제 멈춰야 할 신규 핵발전소 건설, 핵발전 확대 정책	이윤숙	4	24

영덕 핵발전소 유치 과정이 남긴 과제 생사를 가르는 민주주의	김은경	5	22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교토의정서에서 파리 총회로	안병욱	6	08
신재생 에너지의 전망: 재생가능 에너지는 가능하다	이상훈	6	10
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역할	한재각	6	12
YWCA 10만 회원이 이룬 고리호기 폐쇄	편집실	6	16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의 전력수요전망과 수요관리 계획의 문제	석광훈	7+8	08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지역에서부터	하승수	7+8	10
에너지절약 조례와 예산-내 뜻대로 내 손으로	정희정	7+8	12
영덕 주민들의 4번째 싸움-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이현석	7+8	15
핵발전소 주변에 산다는 것의 의미	김영희	9	22
영덕 핵발전소 유치차별 주민투표와 민주주의	이윤숙	10	24
기후변화와 한국 탈핵운동	김춘이	11	07
기후변화와 젠더적 관점	강희영	11	09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원 YWCA 활동보고	배유미	11	22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김은경	12	20

평화통일

평화에 대한 성서적, 여성적 이해	최만자	9	08
여성주의 평화운동 지형에서 본 YWCA 평화운동	김엘리	9	10
통일은 치유다	전우택	9	12
평화를 위한 YWCA 공동 기도문		9	14
제1회 평화·눔페스티벌 '한반도 평화에 물들다'	편집실	10	07

대안교육과 청소년운동 활성화

2015년 Y-틴 전국협의회	편집실	1+2	24
YWCA청년운동의 회복을 기대하며	정동신	3	08
대학·청년기 우리 시대 평화를 말한다	청년평화포럼 기획단	3	10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윤소라	3	13
2015년도 카타리학교 입학식	김민정·김상윤	4	34
청소년 금융교육 올해로 10주년 찾아가는 버스로 재미 더해	홍현정	7+8	31
YWCA 청소년 탈핵캠프	신보미	9	24
2015년 다래교실 비전 페스티벌	편집실	11	30

성인지·여성폭력예방

시민이 만드는 헌법의 필요성과 과제	김선택	5	08
여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과제	김양희	5	11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개정 필요성	편집실	5	13
광역단위 '일자리 정책'의 성 주류화 현황	편집실	12	27

돌봄노동권 확보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토론회 개최	배정미	1+2	28
가사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기대와 걱정	구미영	4	08
가사서비스 이용과 종사자 고용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한 단상	표대중	4	10
가사서비스 사회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필요	정희주	4	12
파주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현장방문	이혜련	5	30
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창립총회	송록희	6	32
동해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현장방문	이혜련	6	34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토론회와 캠페인	편집실	7+8	27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현장방문(3)	이혜련	7+8	29
하남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김상은	9	28
가사지원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완료	배정미	12	25

칼럼-평화

평화, 통일, 그리고 북음	한완상	1+2	16
3.1정신과 YWCA운동의 과제	유성희	3	24
평화 없는 오늘, 평화 실천하는 내일로	정주진	4	18
2015 국제여성 평화걷기	편집실	5	16
나는 왜 걷는가	글로리아 스타이닝	6	24
YWCA 세대 간 공감·소통 라운드테이블	김광식·손자영	7+8	18
서울YWCA 청년대학생 평화캠프	서울YWCA 청소년팀	9	18
불안정한 정전협정, 이제는 평화협정 체결되어야	김창수	10	20
유엔 안보리결의(UNSCR) 1325 채택 15주년을 기념하며	조영미	11	20

평화를 전하는 회원YWCA 이야기	편집실	12	18
--------------------	-----	----	----

컬럼-청년			
관람자가 관람하려면	오연호	1+2	18
2014년 카다리학교 활동나눔과 2015년 운영진 워크숍	이지은	3	28
NO WHERE? NOW WHERE	이지원	4	20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것은 청년의 역할이자 특권	문윤희	5	18
통계로 알아보는 여성, 청년, 그리고 노동	김난주	6	28
데이트 폭력-사랑이란 이름의 가면	김진희	7+8	20
지역별 Y-틴 전국대회	이지은	9	20
아직도 집 사세요? 모두의 집에 사세요	권지웅	10	22
청년 일자리 해법은 재벌개혁이다	은수미	11	18
2030 일하는 여성,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류형림	12	16

컬럼-여성			
여성노동: 신화와 현실	이나영	1+2	20
온라인 공간의 여성 혐오 정서 구조	김수아	3	26
우리 사회 성희롱을 멈추게 하자	백미순	4	22
오래된 새 길, 남녀동수 정치참여	김은주	5	20
2015년 '동일임금의 날' 정책 워크숍 캠페인	김은경	6	26
여성노인 빈곤문제-대전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임송은	7+8	22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김마리아 선생	박용욱	9	16
제20대 총선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여성의 정치참여	김은주	10	18
우리 사회는 성평등인가-2016 한국YWCA 성평등운동을 제안하며	김양희	12	14

세계YWCA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최지혜	1+2	32
비저닝 2035 위한 세계YWCA 이사회	원영희	3	36
평화를 향한 세계 여성들의 목소리	한미미 · 이연주	4	36
UNDCF 참관기 · 네팔 지진피해 모금운동	원영희	5	32
2014 나이지리아 여학생 납치 사건	원영희	6	38
네팔 대지진을 위한 긴급구호	최지혜	7+8	34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2015년 세계대회를 준비하며	이명혜	9	30
제28회 YWCA 세계대회 2035 비전을 위한 워크숍과 회의	최지혜	10	26
제28회 YWCA 세계대회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	편집실	11	11
제28회 YWCA 세계대회 핵 반대, 차별금지, 주창활동 계획 발표	최지혜	12	34

원로에게 듣는다			
김영정, 김한자 명예연합위원에게 듣는 세계YWCA 이야기	편집실	1+2	34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꿈꾸는 YWCA가 되라			
정치경영연합위원 만나다	편집실	3	30
김재화 명예연합위원을 만나다	편집실	5	34
YWCA 은학의 집 개관 15주년 기념 좌담회	편집실	7+8	24
주선애 명예연합위원을 만나다	편집실	9	32
이행자 후원회 이사장을 만나다	편집실	11	32
강교자 복지사업단 이사장을 만나다	편집실	12	12

이달의 현상			
한국YWCA의 운동을 알리는 우리는 대학생이나온서	김민애 · 김민지 · 이연주 · 박은진	1+2	26
제9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편집실	5	26
순천YWCA 70년 역사 재조명과 100년을 향한 비전 세우기	신성의	5	28
소심당(素心堂) 초아라 기념관 개관식	이옥식	10	28
YWCA 제13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편집실	11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를 위한 YWCA · YMCA 공동 기자회견	편집실	11	26
2015 아태지역 금융 포용성 서밋	홍수진	11	28
청주YWCA 창립 50주년 기념식	유경훈	12	23

지역의 탈핵운동			
부산YWCA '고리호기 폐쇄' 부산 범시민운동본부 발족	천현진	1+2	14
청소년 탈핵운동과 삼척시 신규 원전 반대	동해YWCA	3	17
에너지 절전 교육으로 탈핵의 대안을 생각하다	대전YWCA	4	26

고양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	고양YWCA	5	24
-----------------------	--------	---	----

회원YWCA 모금현장			
생명의 바람되어 세상을 살리는 변화의 시작되길	전주YWCA	1+2	36
모금워크숍 이후 열린 생명나무 음악회	부산YWCA	3	42
"회원증모를 위한 변화의 출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청주YWCA	4	40
"당신이 서울YWCA의 희망입니다"	최봄	5	38
나눔과 만남, 사랑이 있는 충주YWCA 바자회	김애영	6	36

북한어린이돕기			
거제YWCA의 작은 실천 나눔	김수연	1+2	38
YWCA어린이집과 함께 한 캠페인	김수연	3	44
남북 사회문화교류 확대해야	이우영	5	40
북한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요	박산영	6	44
내 아이의 생애 첫 나눔, 북한어린이와 함께	박효정	7+8	36
결혼 1주년 기념기부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9	34
인양YWCA 카다리 · Y-틴 아나바다 장터 통해 북한어린이돕기 기부해			
회원YWCA 기부이야기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10	34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11	34
		12	39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다큐멘터리 영화 '퀴바디스'	최대광	1+2	30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최대광	3	40
얼굴 없는 여성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걷다	이훈삼	4	38
이루지 못한 귀향	이훈삼	5	36
세상을 치유하는 기독교	이훈삼	6	40

교육 / 연수 / 워크숍			
사무총장 해외연수	전현숙	3	32
YWCA 지역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 워크숍	편집실	4	30
2015년 YWCA 1단계 실무자 교육	최수안 · 김희숙 · 박순연	4	32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황기숙	9	26
YWCA 어린이집 원장 · 종교교사 해외연수	조희옥 · 장현정	10	30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실무자 연수	신미화	10	32

인터뷰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연합감리교회 박희로 목사	편집실	3	38
'청림 93주년 기념 인터뷰' 김영희, 신희은 명예연합위원을 만나다	편집실	4	14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박은경 이사장 인터뷰	편집실	6	14
"다양한 색채와 형태, 여성의 힘으로 평화의 조각보 지었다"	편집실	6	18
청년을 위한 기회의 공간, 작은 씨앗이 되는 '카페 성수'	편집실	6	30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담임목사	편집실	6	42

YWCA성명서 / 입장			
고리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한국YWCA 성명서		6	17
일본의 침략전쟁과 일본군 성노예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한국YWCA 입장		9	15

기타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1주년 화보	편집실	3	19
'세월호 참사 1주기' 안산YWCA 노란우체통 사업	박정화	4	28
2015 국제여성 평화경기 (Women Cross DMZ)	편집실	6	19
양성평등주간 회원YWCA소식	편집실	7+8	40
'화제의 책' 탈핵 관련 도서 소개	편집실	10	35
제2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편집실	12	30
한국YWCA 청년 인터넷 방송국 YWBS 10기 운영보고	전하예	12	32
2015년 월간(한국YWCA) 독자 색인	편집실	12	49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식민의 역사가 시작된 남산 통감관저터를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로!

우리는행 1005-002-865914 정대협(기억의 터)

조성
예정지

남산 통감관저터

조선통감부는 일제가 조선을 빼앗을 목적으로 남산자락에 설치한 **총독부의 전신**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은 남산통감관저에서 **한일합병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금지과 원로 대신들을 연금한 뒤 8월 29일 순종의 조서가 공포됨으로써 한국은 조선 왕조 519년, 대한제국 14년 만에 망하고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회 (02-324-0238)

상임대표 최영희 (탁틴내일 이사장)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1 모금: 디딤돌 한개 1만원, 몇 개의 디딤돌을 쌓으시겠습니까?**
- 참여자 기록을 위해 **계좌 송금 시 이름/출생연도를 기입**해주세요 ex.김기억/78
- 기부금 영수증 신청: 02-324-0238 전화 또는 www.peace-memory.com에 신청글

- 2 모금 참여 후 SNS에 할머니께 약속의 편지나 기억의 터 응원메시지 올리기**
(#기억의 터 해시태그를 함께 달아주세요!)

- 3 웹자보 공유하기** (트위터/페이스북 공유, 카톡 전달 등)

- 4 단체별로 기억의터 조성추진위 가입하기**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기억의 터**" 검색 후
팔로우, 페이지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은 www.peace-memory.com 에서 확인하세요!